백두산

창간호 - 주체91(2002)년 4월 15일 백두산 편집부

김정일장군님은
통일혁명의 영도자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21세기의 태양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90돌을 맞아 ≪한민전≫ 중앙위에서 축하문을 드렸다

오늘 우리들은 주체의 태양을 우러러 만민이 터치는 축원의 송가가 하늘 땅을 진감하는 역사적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90돌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가장 뜻깊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경사로운 태양절에 즈음하여 어버이수령님 그대로이시며 21세기의 찬란한 태양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의 다함없는 경모와 열화같은 충성의 한마음을 담아 삼가 이 글을 드립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은 우리 겨레가 주체의 영원한 태양을 맞이한 민족최대의 행운이였으며 **김일성**민족의 번영과 자주시대의 여명이 밝아온 역사적 사변이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일찍이 혁명의 길에 나서시어 20세기를 영광스러운 **김일성**세기로 찬란히 수놓아오신 위대한 혁명가, 걸출한 정치가, 불세출의 위인이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님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어 자주시대의 유일한 향도지침을 마련해 주신 천재적인 사상이론가이시며 민족재생의 새봄을 안아오신 조국광복의 은인이시며 미일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시는 신화적 기적을 창조하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은 탁월하고 세련된 영도로 가장 존엄있고 위력한 주체형의 당과 국가, 군대를 창건하시고 그 어떤 시련과 광풍 속에서도 흔들림없이 승리만을 이룩해가는 자주정치의 시원을 열어놓으시였으며 이북땅위에 자주로 존엄높고 자립으로 위력하며 자위로 강력한 민중중심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신 주체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십니다.

경애하는 수령님은 한평생 ≪민중행열차≫를 타시고 숭고한 민중사랑의 서사시를 엮어가시며 수령과 민중의 혼연일체를 실현하신 사랑과 믿음의 위대한 정치가이십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천리혜안의 선견지명으로 혁명위업계승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어 주체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한 만년초석을 마련해주신 것은 조국과 민족, 시대와 역사 앞에 쌓아올리신 공적중에서 가장 성스럽고 위대한 불멸의 대공적입니다. 외세에 의해 나라가 분열된 첫날부터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제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오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 3대헌장을 제시하시고 민족자주통일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 주시는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온 세계 자주화위업의 승리의 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현명하게 영도하여 오시었기에 인류는 어버이수령님을 만민의 어버이, 혁명의 대성인으로 열렬히 흠모하며 우러러 따르고 있습니다. 진정 위대한 사상과 비범한 영도력, 숭고한 덕망으로 민족과 인류의 자주위업에 거대한 업적을 이룩하신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주체의 영원한 태양, 만민의 영원한 어버이로 천세만세 영생하실 것입니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위업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계시어 세기를 이어 백두의 혈통으로 굿굿이 이어지며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필생의 사명으로 간직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장구한 기간 경애하는 수령님의 가장 친근한 동지, 충직한 전우가 되시어 민중을 위한 길에 언제나 함께 계시며 탁월한 사상이론과 정력적인 영도, 특출한 정치실력과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조국청사에 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시였습니다.

만고절세의 위인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천출위인상은 특히 주체의 붉은기를 높이 드시고 20세기 마지막연대에 수놓으신 거룩한 혁명실록으로 찬연히 빛나고 있습니다. 고결한 충정의 화신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류사가 일찍이 알지 못하는 수령영생위업을 최상의 경지에서 실현하시어 우리 민족이 영원한 수령님 식솔, 백두산식솔로 행복과 번영을 누려가도록 하시었습니다.

백두의 기상을 천품으로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독창적인 총대철학을 구현하시어 선군정치방식을 창시하시고 실현하시어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 연합세력의 횡포한 도전과 강권행위를 짓부수고 조국과 민족, 주체사회주의의 운명을 구원하시었으며 사회주의강성대국 건설에로 비약하는 경이적인 현실을 펼치고 계십니다.

희세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가 있기에 오늘 주체조선은 정치강국, 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위용떨치고 이북민중은 우리 수령, 우리 사상, 우리 군대, 우리 제도제일주의 구호 드높이 ≪동지애의 노래≫를 선군시대의 진군가로 더욱 높이 부르며 최악의 역경 속에서도 불사신마냥 일떠서 끊임없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비범한 예지와 대용단으로 민족자주의 원칙을 구현한 6.15공동선언을 마련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민족자주통일의 대문을 열어나가는 새 시대를 펼쳐주시었습니다.

비범한 지략과 천재적 영도실력, 투철한 혁명적 원칙성으로 세계정치를 주도해 나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어 주체조선의 권위와 존엄은 하늘에 닿고 공화국은 사회주의의 보루, 평화의 성새로 세인을 끝없이 경탄시키고 있습니다.

참으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수령과 그 위업에 무한히 충실한 주체위업의 위대한 계승자, 희세의 위인이시며 우리 민족과 인류에게 광명을 주시는 21세기의 찬란한 태양이십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러르며 세기를 이어 영수복, 장군복을 받아안은 행복과 자긍심에 넘쳐있는 우리 남녘민중은 영토가 크고 인구수가 많아서 대국이 아니라 위대한 수령을 모실 때 작은 나라도 대국으로, 강국으로 된다는 역사의 철리를 가슴깊이 절감하고 있으며 장군님의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기어이 관철하여 통일강성대국을 안아오고야 말 드높은 결의에 충만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한민전과 변혁운동대오를 위대한 장군님사상의 절대적인 숭배자, 관철자, 장군님의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는 열혈투사들의 대오로 더욱 튼튼히 다지며 각계민중 속에 **김일성**, **김정일** 천출위인상을 더욱 깊이 심어주어 온 남녘땅에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숭배열기가 활화산처럼 터져오르게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걸맞게 대중적인 반미반전투쟁을 과감히 벌여 내외호전광들의 반북전쟁책동을 단호히 저지파탄시키며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는 자주통일구호를 더 높이 치켜들고 민족공조와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가열찬 투쟁으로 올해 민족자주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마련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안녕과 건강은 조국통일과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한 결정적 담보이며 전인류의 한결같은 염원입니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뜻깊은 태양절의 이 아침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의 일치한 소망을 담아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영생을 기원하며 21세기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부디 옥체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2 태양절 90돌 특집
- 어버이주석님 그대로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 ≪백두산≫ 창간!
- 백두산을 우러른다

6 노작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업적을 빛내어 나가자(1)

8 세기와 더불어
- 6장 4절 합작은 불가능한가?

10 노동신문 정론
- 우리 수령님

12 김일성대학방송강좌
-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어버이로 모신 화목한 대가정
- 숭고한 인덕을 지니시고 온 나라를 화목한 대가정으로 전변

14 한국민족민주전선
- 남북관계개선에 제동을 거는 이회창
- 전쟁불구름 몰아오는 이회창 몰아내자
- 미국은 침략자, 약탈자, 전쟁의 화근

16 투쟁보도
- 색깔 있는 정치하자
- 한반도문제학술회의 5월 미국서 개최
- 남북 금강산상봉 일부일정 합의
- 한양대에 불고있는 북풍

어버이주석님 그대로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주체의 태양을 우러르는 만민의 송가가 온 우주에 차 넘치는 가운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90돌을 뜻깊게 맞이하고 있는 우리 전사들과 각계민중은 어버이주석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주석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영도자 **김정일**동지께 삼가 이 글을 올립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탄생하신 오늘은 일만년 민족사에 처음으로 위대한 태양이 솟아오른 7천만겨레의 대명절이며 영원무궁할 주체시대의 여명이 밝아온 역사적인 대축일입니다.

인류가 처음 맞이하는 위대한 수령님의 한 평생은 천재적인 예지와 비범한 영도, 숭고한 덕망으로 불멸의 금자탑을 쌓아올리시며 20세기를 빛내이신 찬란한 태양의 역사입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후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천재적 사상이론가이시고 총대로 조국을 찾아주신 광복의 은인이시며 미일침략자들을 타승하신 백두의 천출명장이십니다.

온 지구를 덮은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은 오늘 진보적 인류에게 혁명승리의 향방을 밝혀주는 투쟁의 좌표, 영생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의 무한한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주석님께서는 건당, 건군, 건국 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고 여러 단계의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어 주체조선을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온 인류가 경탄하며 부러워하는 이상국가로 건설하시였습니다.

이민위천을 필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신 어버이주석님께서는 이북사회를 사랑과 믿음, 일심단결의 꽃이 활짝 피어난 주체의 대화원으로 가꾸시고 누구나 다 보람과 행복에 넘쳐 살아가는 민중복락의 지상낙원으로 펼쳐주시였습니다.

분단조국의 현실을 누구보다도 가슴아파하신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조국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략인 조국통일3대헌장을 마련하여 주시고 거룩한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시였습니다.

주체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을 승리로 영도하시였기에 인류는 수령님을 세계정치의 대원로로, 영원한 스승으로 높이 우러르고 있습니다.

위대한 주석님께서 천리혜안의 예지로 주체혁명위업의 영도계승문제를 완전무결하게 해결하신 대위업은 시대가 흐를수록 더욱 찬연한 빛을 뿌릴 것입니다.

진정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사상과 탁월한 영도, 불멸의 업적과 고매한 덕성으로 20세기 자주시대를 빛내이신 주체의 찬란한 태양, 영원한 태양이십니다.

우리 민중은 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시는 절세의 위인을 민족의 어버이로 모신 한없는 영예를 새삼 절감하면서 또 한 분의 태양을 민족의 영수로 모신 수령복, 장군복에 격정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위업완성을 필생의 사명으로 삼으시고 수십여성상 혁명청사 위에 불멸의 혁명실록을 아로새기시였습니다.

수령영생위업을 최상의 경지에서 빛나게 실현하신 위업은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고결한 충정과 도덕의리의 정화이며 혁명역사에 영원히 빛날 특출한 업적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총대중시사상을 계승발전시키신 독창적인 선군혁명사상으로 제국주의의 고립압살책동을 짓부시었으며 주체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앞당길 수 있는 필승불패의 전략을 밝혀주시였습니다.

주체사상에 선군혁명노선을 더한 21세기 **김정일**혁명사상은 오늘 이북사회에 구현되어 군사,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며 이북민중은 우리 수령, 우리 사상, 우리 군대, 우리 제도가 제일이라는 혁명적 구호를 높이 들고 연일 기적적 위훈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통일의 태양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버이주석님의 통일유훈을 구현하시어 21세기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을 발표하신 것은 조국통일사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은 획기적 사변으로 됩니다.

어버이수령님의 대를 이어 국제적인 수령으로 존경받는 위대한 장군님의 절대적 권위로 하여 오늘 주체조선의 자주적 존엄은 하늘에 닿고 21세기태양을 추앙하는 진보적 인류의 송가는 천지를 진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경애하는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사상이론에서나 영도력에서나 풍모에서나 위대한 수령님 그대로이신 위인 중의 위인, 수령 중의 수령이십니다.

우리 청년투사들과 각계민중은 온 인류가 흠모하는 불세출의 영웅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통일혁명의 최고영도자로 모시는 한 조국통일은 확정적이라는 철석같은 신념으로 어버이주석님의 통일유훈을 관철하는 애국투쟁에 총분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단히 사상을 단련하여 엎어놓아도 매달아놓아도 수령만세, 장군만세를 부르는 2000년대의 열혈투사, 장군님의 향도따라 뜻과 운명을 같이하는 신념의 동지가 될 것입니다.

어버이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의 충직한 전사들인 우리들은 두분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통일혁명위업을 널리 선전하여 각계민중의 숭배열기가 온 남녘땅에 대하로 굽이치게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장군님께서 마련하여 주시고 수령님의 통일유훈이 구현된 6.15공동선언을 결사관철하는 투쟁에서 선봉이 되고 주력이 되어 올해를 민족자주통일의 결정적 승리의 해로 빛내일 것입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건강과 안전은 수령님의 당부이며 인류의 염원입니다.

우리 청년전사들은 애국민중과 함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어버이주석님의 영생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행복을 삼가 축원합니다.

위대한**김정일**장군님의영도따라
자주민주통일을위하여투쟁하는
청년주체주의자대오
통일여명편집국백두산편집부
인터넷구국의소리편집인
주체91(2002)년4월15일
서울

≪백두산≫ 창간!

≪김정일은 1942년 2월 16일 새벽에 백두밀영에서 태어났습니다.≫
(김일성주석, 세기와 더불어 8)

≪출판보도부문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수령님의 위대성과 영도의 현명성, 고매한 덕성,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인민들속에 깊이 있게 선전하는 것을 주선으로 끌고나가야 합니다.≫(김정일장군, ≪출판보도사업에 대한 당의 방침해설≫에서 재인용)

오늘 4월 15일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탄신 90돌이 되는 대경축일입니다.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대오는 역사적인 주체 91년의 태양절을 뜻깊게 맞이하기 위하여 ≪백두산≫을 창간합니다.

우리는 뜻깊은 오늘 그간 적지않은 역할을 하였던 ≪통일아리랑≫을 계승발전시켜 ≪백두산≫을 정식 창간합니다. ≪백두산≫은 ≪통일아리랑≫이 지속적으로 발간될 것을 바라는 동지들의 희망과 정세발전의 요구를 반영하여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통일아리랑≫은 ≪백두산≫의 전신, 창간준비호라 할 수 있습니다.

≪백두산≫은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성선전을 기본으로 하는 피디에프신문이며 청년주체주의자대오의 대외기관지입니다.

≪백두산≫은 무엇보다도 백두의 천출 3대장군의 사상, 영도, 풍모의 위대성선전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나아가는 출판물입니다. 특히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위대한 통일혁명 사상과 전략, 불멸의 영도업적을 선전하는 사업을 가장 중요한 편집방향으로 삼고있습니다.

≪백두산≫은 전위당의 과학적 노선과 정책을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히 전달하는 일간지입니다.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구국의소리방송≫에 공개된 당정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거의 실시간대로 동지들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백두산≫은 인터넷상에 공개된 민족민주운동관련 소식을 집약적으로 전달하는 종합정보지입니다. 민족민주사이트만이 아니라 국내외정보사이트에서 민족민주대오에 필요한 자료를 선별하여 체계적으로 수록할 것입니다.

≪백두산≫은 새형의 피디에프일간지입니다. 기존 신문을 단순히 피디에프로 이미지화한 것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편집되고 다양한 기능을 갖춘 명실상부한 피디에프일간지입니다.

≪백두산≫이라는 제호는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성을 선전하는 출판보도물임을 표현합니다. 혁명의 성산 백두산은 백두의 혁명전통을 상징하며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탄생하신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백두산은 미제국주의가 가장 두려워하는 우주발사체의 이름입니다. ≪백두산≫은 미제국주의의 심장부를 겨누는 정치사상적 유도탄이 될 것입니다. ≪백두산≫이라는 제호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친필글씨입니다.

≪백두산≫은 ≪통일아리랑≫의 편집체계를 계승하면서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간지 4면을 늘렸으며 편집틀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늘어난 4면은 요일마다 특집호로 꾸며질 것입니다.

피디에프일간지 ≪백두산≫의 창간결의야말로 우리들의 혁신의지가 얼마나 확고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백두산≫이야말로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살며 투쟁하려는 청년주체주의자대오의 패기와 기상을 보여주는 시금석입니다.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대오는 앞으로 ≪백두산≫과 함께 혁신하고 투쟁하며 전진할 것입니다.

통일여명 편집국 백두산 편집부
주체 91(2002)년 4월 15일
서울

금수산 기념궁전

이 궁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성지이다.

궁전 실내에는 **김일성**주석의 립상이 모셔져 있으며 그이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홀이 있다.그리고 조선인민이 최대의 국상을 당하고 피눈물을 흘리던 그 나날들을 돌이켜 보게 하는 울음홀, 주석께서 현지지도와 외국방문시에 리용하신 렬차와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리용하신 승용차, 세계 여러 나라에서 수여 받으신 훈장과 메달 등이 있다.

궁전 외부정면에는 주석의 태양의 초상화가 모셔져 있다.

그리고 궁전 광장, 외랑, 수목원 등이 특색 있게 꾸려져 있다.

지난 해에는 70여톤짜리 화강석통돌 100여개를 가공하여 울타리와 대문을 세웠다.

학을 량면으로 특색 있게 형상한 울타리와 금빛으로 빛나는 대원수별, 별을 받들어 올린 목란꽃과 진달래꽃 부각장식들, 그 굽도리를 감싸며 장식된 대원수견장 월계수 등으로 장식된 돌대문은 주체의 최고성지의 전반적 품격에 맞게 최상의 수준에서 형상되였다.

이 궁전은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훌륭히 꾸려 졌다.

그이께서는 금수산기념궁전은 인민의 기념궁전이 되여야 수령님께서 영원한 인민의 수령으로 영생하실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 건설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도록 세심히 지도하시였다.

그리고 궁전 외랑건설이 끝났을 때에는 몸소 수평승강기를 타보시면서 우리 인민들이 눈비를 맞지 않고 더위도 모르고 궁전 경치를 보면서 이곳을 방문하게 되였다고 만족해 하시였다.

주체85(1996)년 7월 초에는 일군들에게 기념궁전을 누구나다 와볼수 있게 할데 대하여 말씀하시며 국가적인 명절을 비롯하여 꽃이 만발하고 단풍이 붉게 타는 계절에 궁전 광장을 개방하여 사람들이 와서 기념사진도 찍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그해 7월 27일부터 궁전 광장이 개방되여 현재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 오고 있다.

만수대 조선혁명박물관

김일성화

김일성화는 인도네시아의 식물학자인 분트가 오랜기간의 연구끝에 주체53(1964)년에 만들어 낸 꽃이다.

당시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인류의 자주화위업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 올리고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을 칭송하여 주체54(1965)년 4월에 이 꽃을 **김일성**화로 명명하였다.

지금까지 이 꽃은 조선의 각지와 중국, 일본, 벌가리아, 기네, 잠비아, 꼴롬비아 등 세계 수십여개 나라들에 널리 퍼져 재배되고 있다.

김일성화는 란초과 식물의 한 품종이다.

줄기는 곧추 서있는데 그 높이는 30~70센치메터이며 잎새는 시원하게 펼쳐져 있다.진분홍보라색의 꽃송이가 약 100일동안 련속 피여 나는데 꽃직경은 7~8센치메터이다.

란초과에 속하는 꽃들과 구별되는 특징은 꽃잎에 3개의 흰 점이 뚜렷이 새겨져 있는것이다.

번식은 포기가르기, 싹떼여심기, 조직배양 등으로 할수 있다.

조선에서는 지금까지 ≪**김일성**화재배기술≫을 비롯하여 이 꽃의 재배보급에 필요한 참고도서들이 출판되였으며 **김일성**화와 관련한 많은 시가 작품들이 창작보급되였다.

국제친선전람관

김일성주석님께서 세계 여러나라들에서 받으신 훈장, 메달, 명예칭호자료 진열실

≪**김일성**주석님은 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는 글발을 들고 거리행진을 하는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참가자들

백두산을 우러른다 1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이남 민중의 마음마음은 백두산3대장군의 불멸의 업적이 깃들어 있는 백두산으로 끝없이 물결쳐 가고 있다.

이남 민중은 태양의 광휘로운 빛발로 시대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고 태양의 인력으로 민중의 자주위업을 향도하시며 태양의 품으로 만민을 안아주시는 백두태양을 우러러 다함없는 경모와 열화와 같은 축원을 드리고 있다.

나는 백두산을 태양의 성지로, 마음과 신념의 기둥으로 간직하고 열렬히 숭상하고 있는 이남의 민심을 여기에 담아본다.

태양의 성산 백두산

백두산은 우리 나라 조종의 성산이다. 반도 삼천리강산의 발원지이고 민족의 얼과 역사가 깃든 민족의 성산이다. 반만년 민족사가 백두산에 태를 묻고 흘러왔고 백두산과 더불어 민족대장정의 길을 걸어왔다. 원시조 단군이 민족의 시원을 개척한 곳이 바로 백두산이였고 주몽 또한 백두산을 우리 민족의 시조땅으로 삼고 고구려를 건국했다.

우리 민족은 단군창업이래 민족의 얼, 애국선열의 넋이 뿌리내린 백두산을 더없이 숭상하며 사랑해왔다. 우리 민족이 백두산을 그토록 숭상하면서 사랑해 온 것은 민족적 자긍심이고 뜨거운 민족애이다. 더욱이 오늘 백두산은 3대 천출위인을 받들어 올린 명산중의 명산, 혁명의 성산으로 알려지면서 백두산에 대한 이남 민중의 숭배는 백두산3대장군에 대한 숭배열기로 표출되고 있으며 이것을 민족의 최대 자랑, 최상의 영광으로 간주하고 있다. 강도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비참한 식민지노예로 신음하던 우리 겨레가 바로 이 백두산에서 민족운명의 구세주, 만고의 영장들을 맞이하였던 것이다. 백두산에는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숙여사, **김정일**장군님의 혁명역사가 뜨겁게 새겨져 있다. **김일성**주석님은 10대에 광복의 웅지를 품으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시어 장장 20성상 백두영봉과 만주광야를 누비며 포악한 일제를 격멸하고 조국광복의 대업을 실현하신 전설적 영웅이시고 태양이시다.

백두산을 참답한 겨레산악회 회원은 관련서류 90여편을 참고하여 펴낸 도서 ≪백두산≫에 백두산이 식민지민족해방의 등불로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 자리잡게 된 것은 여기서 항일무장투쟁이 조직전개되였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김일성**주석님께서 백두산에서 항일무장대전을 조직지휘하신 그 무렵부터 우리 민중은 백두산을 민족해방투쟁의 상징으로 삼았고 백두산은 실제로 식민지 조선민중에게 희망의 별처럼 빛났다고 썼으며 민족노래연구모임 새세상회원 또한 자기의 저서에서 **김일성**주석님께서 백두영봉위에 조국광복의 봉화를 높이 지펴올리시어 겨레에게 광복의 서광을 비쳐주신 그때로부터 백두산은 영웅의 산으로, 광복의 활화산, 광복거사의 상징으로 되었다.

백두산에서 울린 광복의 총성은 2천만 동포를 대거 각성시키고 삼천리강토를 광복의 열망으로 끓어번지게 하였고 그것은 마침내 8.15조국광복으로 결과되었다라고 서술한 것처럼 정녕 백두산에는 위대한 주석님의 영광찬란한 혁명역사, 투쟁업적이 가득차 있는 것이다.

항일의 여장군으로 명성 높으신 김정숙여사도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항일대전에 참군하시어 10여년세월 **김일성**주석님의 휘하에서 무비의 용맹을 떨치신 항일의 여성영웅이시다. 빨찌산시절 김정숙여사는 간고하고 준엄한 시련속에서도 언제나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수호한 수령옹위영웅으로, 가열처절한 전투마당에서 왜적을 무자비하게 쓸어눕히신 유능한 군사지휘관, 백발백중의 명사수로, 각계 민중을 반일성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신 능숙한 정치활동가로써 조국광복위업에 불멸의 공적을 쌓아으셨다. 지금도 백두산에는 조국광복의 햇발이 되시어 일만산악을 주름잡으신 여사의 거룩한 자욱이 역력히 어려있다. 혁명의 성산으로써의 백두산의 위상은 **김일성**주석님의 주체위업을 그대로 이어나가시는 또 한분의 천출위인 **김정일**장군님을 백두산의 아들로 맞이한 것으로 하여 더욱 뚜렷이 부각된다.

예로부터 우리 겨레는 조종의 산 백두산을 백의민족의 신앙의 대상으로 숭상하면서 민족의 운명을 지켜주고 이끌어줄 지도자는 백두산의 천기와 그 웅장한 기상, 백두산에서만 지닐 수 있는 용맹과 담력을 체현한 백두산위인이라고 그려왔다. 백두산에 대한 이러한 절대적 믿음에 백두산형의 위인이신 **김정일**장군님께서 답해 나서신 것이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광복의 봄우뢰가 메아리치던 역사적 전환의 시기인 주체31(1942)년 2월 16일 조종의 산 백두산에서 백두광명성으로 탄생하셨다. **김정일**장군님처럼 백두산의 태고연한 밀림속 귀틀집에서 그것도 민족구원의 총성이 울부짖는 격전장에서 만고의 영웅 **김일성**주석님과 항일의 여장군 김정숙여사를 양친으로 모시고 빨찌산의 아들로 탄생하신 것은 고금동서에 유일무이한 전설같은 탄생이며 그 자체가 그분이 천출위인이심을 절감케한다.

장군님께서는 백두산자락에 안겨 항일전의 총성과 천고밀림의 설레임소리를 자장가로 들으시고 험준한 백두영봉과 검푸른 백두대천지, 끝없이 펼쳐진 구릉과 밀림의 바다를 돌아보며 광란하는 눈보라와 비바람속에서 성장하셨다. 바로 이러한 장군님이시기에 그분께서는 백두의 넋과 기상을 그대로 받아 안으시어 주체위업계승의 웅지와 애국의 심혼을 지니셨으며 빛나는 슬기와 굳센 의지, 강인한 담력과 우주도 한품에 안으실 넓은 도량, 호방한 기풍을 체현하신 것이다.

참으로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사상과 영도, 풍모, 덕망이 똑같으신 또 한분의 천출위인을 우리 민족의 위대한 아들로 최고영수로 맞이한 바로 이것은 백두산에 다시없는 영광인 동시에 우리 겨레의 최대의 경사이고 무상의 자랑이 아닐 수 없다.

지구촌에는 이름난 명산들과 위인들을 배출한 성지들이 많지만 당대에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숙여사, **김정일**장군님과 같으신 천출위인들을 배출한 그런 명산, 그런 성지들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줄 안다. 백두산은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숙여사, **김정일**장군님의 산이며 백두산은 그분들의 상징이다. 이렇게 백두산은 백두산3대장군을 모시고 그분들의 불멸의 업적을 안고 있는 것으로 하여 세계적인 명산으로, 태양의 성산으로 지구위에 우뚝 솟아 찬연한 빛을 뿌리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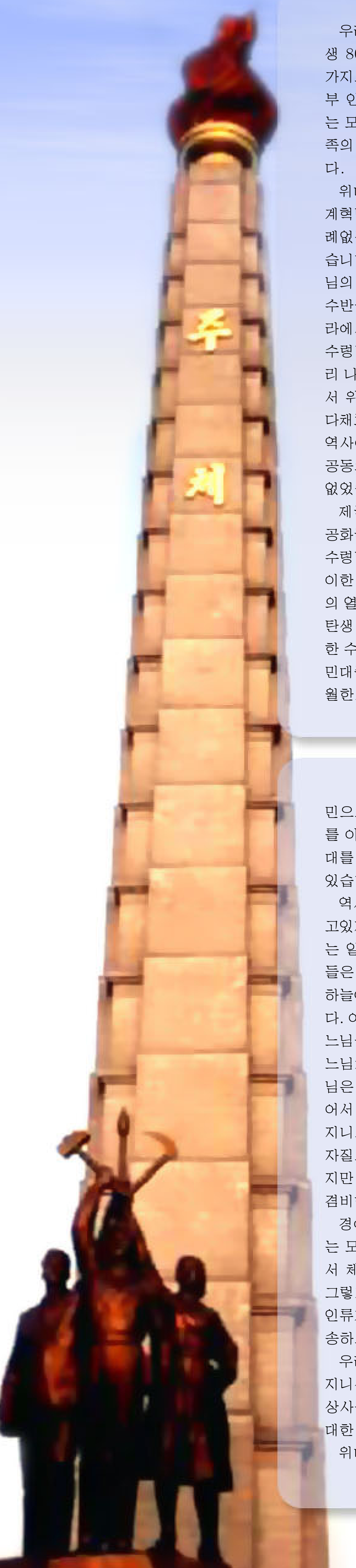
오늘 백두산을 우리 민족만이 아닌 온 인류가 태양의 산으로 숭상하고 있다. 올해 **김정일**장군님의 탄신절을 맞아 백두산밀영지구에서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 국제기구대표들의 참가밑에 ≪21세기의 태양맞이모임≫이 성대히 거행되고 ≪백두산선언≫이 채택되었다. 이것은 위대한 태양을 받들어 올린 백두산을 태양의 성산으로 세계에 선포한 일대 사변으로, 위대한 태양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는 인류의 장엄한 기상과 의지의 과시로 역사에 찬란히 기록될 것이다. 태양의 성산에서 솟아오른 위대한 태양은 우리 행성을 밝게 비추어 21세기를 **김정일**세기로 빛내이며 지구촌을 **김정일**세상으로 붉게 물들일 것이다.

(내일 계속)

한민전 평양대표부 대표 박광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업적을 빛내어 나가자(1)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하신 담화 / 주체91(1992)년 4월 17일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80돐을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성대히 경축하였습니다. 공화국북반부 인민들뿐아니라 남녘형제들, 해외에 사는 모든 동포들이 수령님의 탄생 80돐을 민족의 가장 큰 경사로 뜻깊게 기념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80돐 경축행사는 세계혁명적 인민들의 다함없는 축원속에서 전례없는 국제적인 대정치축전으로 진행되였습니다.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된 수령님의 탄생 80돐 경축행사에 많은 국가 및 당수반급대표단을 비롯하여 세계 130여개 나라에서 온 420여개의 대표단들이 참가하여 수령님께 열렬한 축하를 드리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뿐아니라 세계 수많은 나라들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80돐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경축행사들이 조직진행되였습니다. 역사에 우리 수령님의 탄생 80돐처럼 인류공동의 경사로 성대히 경축한 대정치축전은 없었습니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사회주의, 반공화국 책동이 악랄하게 벌어지고 있는 때에 수령님의 탄생일을 인류사적인 대경사로 맞이한 것은 참으로 의의깊은 일입니다. 만민의 열렬한 축원속에 성대히 진행된 수령님의 탄생 80돐 경축행사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있고 수령님께서 세우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가 얼마나 우월한가 하는 것을 힘있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의 대정치축전은 우리 인민들에게 위대한 수령을 모신 크나큰 영광과 기쁨을 안겨주고 세계 혁명적 인민들에게 사회주의의 승리에 대한 신심을 안겨준 역사적 사변이였습니다.

인민의 가장 큰 행운은 현명한 수령을 모시는 것입니다. 수령님의 탄생 80돐 경축행사에 참가한 세계 여러 나라의 벗들은 한결같이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신 것은 조선인민의 가장 큰 행운이라고 하면서 부러움을 금치 못해하였습니다.

인민대중은 자신의 힘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자기 운명의 주인이며 역사의 주체입니다. 그러나 인민대중은 현명한 수령을 모실 때에만 자기 운명의 주인, 역사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있습니다. 지난날 인민대중이 오랜 세월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되지 못한 것은 그들이 자기의 자주적인 요구와 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의 정치적 역량으로 결속되지 못하였기 때문이였으며 그것은 옳은 영도를 받지 못한 것과 관련되여 있었습니다. 노동계급이 역사무대에 출현하면서 인민대중은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이끌어 나갈수 있는 영도계급을 가지게 되였습니다. 노동계급도 정치적 수령의 옳은 영도가 없이는 영도계급으로서의 사명을 수행할수 없습니다. 사회주의제도가 서면 인민대중이 사회에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있는 사회경제적 조건이 지어지지만 사회주의제도가 섰다고 하여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을 저절로 개척해나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도 옳은 영도가 보장되지 못하면 인민대중이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지킬수 없습니다.

현명한 수령의 영도를 받아야만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을 성과적으로 개척해 나갈수 있다는 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역사가 뚜렷이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하나의 핏줄을 잇고 하나의 강토에서 찬란한 문화를 창조하며 살아온 지혜롭고 용감한 인민입니다. 그러나 지난날 우리 인민은 나라와 민족을 이끌만한 영도자가 없었던 탓으로 식민지노예의 처지에 굴러 떨어져 갖은 멸시와 천대를 받아왔으며 민족의 우수성을 빛내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우리 인민이 수령님을 혁명의 진두에 모심으로써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민족의 슬기를 떨쳐나가는 위대한 인민으로 되였습니다. 인민의 위대성은 곧 수령의 위대성입니다. 인민의 위대성은 영토의 크기나 인구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수령을 모시고있는가 하는데 있습니다.

수령은 인민들속에서 나오지만 인민이 강대하여야 위대한 수령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천대받고 압박받던 약소민족도 위대한 수령을 낳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이 없이는 위대한 인민이 나오지 못합니다. 인민은 위대한 수령을 모셔야 위대한 인민으로 될수 있습니다. 인민의 위대성이 대를 이어 빛나는 것도 위대한 수령의 영도가 대를 이어 계승되는 조건에서만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역사는 수많은 이름있는 영도자를 기록하고있지만 우리 수령님과 같은 위대한 영도자는 알지 못하고있습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하느님을 믿지 않지만 우리 수령님은 하늘이 낸 위인이시라고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어느 한 나라의 벗도 자기는 지금까지 하느님을 믿지 않았지만 **김일성**주석님만은 하느님처럼 믿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수령님은 사상이론적예지와 영도력과 덕성에 있어서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뛰여난 천품을 지니고 계십니다. 역사에는 남다른 품격과 자질로 하여 이름을 날린 위인이 적지 않았지만 우리 수령님처럼 뛰여난 품격과 자질을 겸비한 위인은 없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위인이 지닐수 있는 모든 품격과 자질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고 계시는 걸출한 위인이십니다. 그렇기때문에 세상사람들은 우리 수령님을 인류가 낳은 위인중의 위인이시라고 높이 칭송하고있습니다.

우리 수령님은 비범한 사상리론적 예지를 지니신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십니다. 인류사상사를 놓고 보아도 우리 수령님과 같은 위대한 사상리론가는 일찌기 없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제기되는 이론실천적 문제에 대하여 명철하게 밝혀주시였습니다. 수령님의 사상이론은 말그대로 백과전서적입니다. 이번에 인도에서 ≪**김일성**백과전서≫를 발간한 것을 비롯하여 세계 수많은 나라들에서 수령님의 노작과 사상이론을 해설하는 책들을 출판하면서 수령님의 백과전서적인 뛰여난 사상이론을 높이 칭송하였습니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나 명철한 사상이론적 해명을 주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일군들은 수령님의 교시를 접할 때마다 수령님의 비범한 통찰력과 한없이 넓은 식견, 심오하고 해박한 지식에 감탄을 금치 못하군합니다. 수령님의 접견을 받는 다른 나라 인사들도 정치가이건 학자이건 누구나 다 수령님의 빛나는 예지와 넓은 식견에 탄복하며 찬사를 아끼지 않고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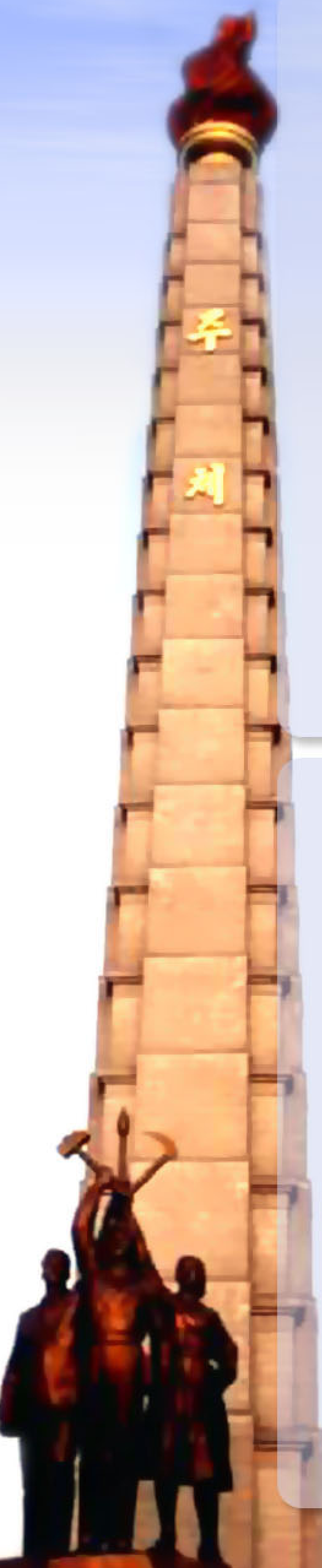
우리 수령님의 사상이론은 백과전서적일뿐아니라 독창성으로 일관되여있습니다. 수령님께서는 모든 사상이론을 독창적으로 전개하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사상이론을 탐구하는데서 교조주의를 배격하시고 자주시대의 요구에 맞게 모든 사상이론을 새롭게 독창적으로 밝히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사상리론의 풍부성과 심오성, 독창성은 수령님의 뛰여난 예지와 비상한 탐구력, 위대한 혁명실천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습니다. 수령님은 통찰력과 분석력이 뛰여날뿐 아니라 기억력이 비상하십니다. 누구나 수령님께서 어린시절과 초기혁명활동시기로부터 전생애에 있었던 천만가지의 일들을 팔순이 되는 오늘까지도 상세하게 기억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있습니다. 수령님은 탐구력에서 또한 특출하십니다. 수령님께서는 어느 한 순간도 사색과 탐구를 멈추시는 때가 없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 정치정세와 과학기술에 대한 자료로부터 우리 작가들이 써내는 장편소설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다 보십니다. 나는 수령님의 독서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장편소설 같은 것은 녹음하여 올리군합니다. 수령님께서 여러가지 자료와 책을 많이 보신다고 하여 수령님의 사상이론이 결코 서재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수령님께서는 실천과 유리되여 학문상으로만 이론을 연구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가르치시였습니다. 이론은 실천을 위한 것이여야 하고 실천속에서 나와야 하며 실천에 의하여 검증되여야 한다는 것이 수령님의 신조입니다. 수령님께서 한평생 벌리신 비상히 폭넓고 위대한 혁명실천이 바로 그토록 참신하고 풍부한 사상이론을 낳은 원천으로 되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 근 70성상 혁명과 건설을 영도해오시는 과정에 가장 심오하고 풍부한 경

이번의 대정치축전은 우리 인민들에게 위대한 수령을 모신 크나큰 영광과 기쁨을 안겨주고 세계 혁명적 인민들에게 사회주의의 승리에 대한 신심을 안겨준 역사적 사변이였습니다.



험과 업적을 이룩하시였으며 그것을 일반화하여 주체의 사상, 이론, 방법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하시였습니다.

우리 수령님의 사상이론활동은 철저한 인민성으로 일관되여있습니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와 이해관계를 정확히 반영하여 그들에게 옳은 투쟁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는 것은 혁명의 영도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무궁무진한 지혜의 소유자는 인민대중이지만 인민대중의 요구와 이해관계는 분석종합되고 체계화되여야 시대를 대표하는 사상이론으로 될수 있습니다. 인민대중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분석종합하고 인민대중이 축적한 투쟁경험을 일반화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과학적인 사상이론을 제시하는 사업은 탁월한 수령에 의하여 수행됩니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사상이론활동을 언제나 인민대중속에서 진행하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인민대중을 선생이라고 하시면서 인민대중의 지향과 염원을 반영하고 인민대중의 투쟁경험을 분석종합하여 사상이론을 내놓으시였습니다. 수령님의 사상이론은 그대로 인민대중의 지향이고 의사입니다. 인민들의 지향과 의사를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하여 수령님의 사상이론은 끝없이 심오하면서도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할수 있는 통속적인 것으로 되여있으며 인민들은 수령님의 사상과 이론을 자기들의 신념과 의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민이 수령님의 혁명사상밖에는 그 어떤 다른 사상도 모른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살고있으며 세계 진보적 인류가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따라 배우고 있는 것은 바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사상이론이 인민대중의 염원과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우리 수령님은 탁월한 영도력을 지니신 위대한 영도자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영도는 가장 현명하고 과학적인 영도입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반인민적 통치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인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영도자의 경우에도 아무런 실책이 없이 정치를 한 예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수령님은 근 70성상 단 한번의 노선상 착오나 편향도 없이 혁명과 건설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영도해오시였습니다. 수령님의 영도의 현명성과 과학성은 멀리 앞을 내다보시는 수령님의 비범한 예지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습니다.

수령님께서는 노선과 정책을 하나 내놓아도 멀리 앞을 내다보고 내놓으십니다. 세상사람들은 오늘의 복잡한 정세속에서도 끄떡하지 않는 우리 나라의 당당한 기상을 놓고 수령님께서 일찌기 자주, 자립, 자위의 노선을 제시하시고 자주적인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신 선견지명에 대하여 탄복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자체의 민족간부를 가지고 나라를 훌륭히 건설하고 관리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놓고서도 수령님께서 해방직후 그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속에서 만경대혁명학원과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한 민족간부양성기지를 선참으로 꾸리신 것이 얼마나 현명한 조치였는가 하는 것을 다시금 깊이 느끼게 됩니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영도는 혁명과 건설의 그 어느 한 분야에도 미치지 않은데가 없습니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정치와 경제, 과학과 교육, 군사로부터 문학예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문 사업을 남다른 조예를 지니시고 현명하게 영도하여 오시였습니다. 참으로 우리 수령님은 문무를 겸비하시고 다재다능하신 위대한 영도자이십니다. 우리 인민이 정치와 경제, 과학과 교육, 문학예술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할수 있은 것은 수령님께서 탁월한 영도예술과 영도적 수완으로 모든 부문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수령님의 영도는 강철의 의지와 비범한 영도력을 지니시고 역경을 순경으로,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시는 위대한 영도입니다. 우리 혁명은 남달리 어려운 길을 걸어왔으며 시련의 고비를 수없이 넘어오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항일혁명전쟁과 조국해방전쟁, 전후복구건설을 비롯하여 우리 혁명앞에는 엄혹한 시련이 수없이 가로놓여있었지만 우리 수령님께서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강철의 의지를 지니시고 난관을 맞받아나가시였으며 비범한 영도력으로 혁명과 건설을 끊임없는 앙양에로 이끄시였습니다. 수령님의 이런 강철의 의지와 비범한 영도로 하여 우리 인민은 그 어려운 시련속에서도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을 연이어 창조하며 자기 운명을 빛나게 개척하여올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영도는 모든 것을 인민대중에 의거하고 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하여 풀어나가시는 인민적 영도입니다.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장구한 기간 끊임없이 현지지도의 길을 걸으시면서 인민들의 염원과 의사를 반영하여 노선과 정책을 세우시고 대중을 조직동원하여 혁명과 건설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오시였습니다. 우리 당이 사소한 노선상 착오나 실수가 없이 혁명과 건설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올수 있은 것은 수령님께서 인민들속에 계시며 인민들의 염원과 의사를 반영하여 노선과 정책을 세우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현명하게 조직영도하시였기 때문입니다.

수령님의 한평생은 끊임없이 인민들을 찾으시는 현지지도의 한평생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하루와 같이 바치시며 크나큰 노고의 길을 걸어오신 수령님께서는 팔순이 되신 오늘에도 인민을 찾아 현지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민은 ≪행복의 요람속에 인민을 재우시고 이 밤도 사랑의 길 떠나시는 수령님≫이라고 가슴 뜨겁게 노래하고있으며 수령님께서 한순간이라도 편히 쉬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는 숭고한 덕성을 지니신 진정한 인민의 수령이십니다. 덕망에 있어서 우리 수령님과 대비할수 있는 위인은 역사에 없었습니다.

옛날부터 정치가는 인덕이 높아야 하며 나라는 인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말이 전해져왔습니다. 그러나 착취사회는 결코 인덕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사회가 아니며 착취사회의 통치자는 인덕의 체현자로 될수 없습니다.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압박은 인간에 대한 사랑과 결코 양립될수 없습니다. 진정한 인덕의 정치는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고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실시될수 있습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도 인덕의 정치는 저절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는 수령을 모셔야 실현될수 있습니다.

우리 수령님은 인민에 대한 사랑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고 계시는 인민의 위대한 어버이이십니다. 수령님께서는 돈이 없이는 살수 있어도 인덕이 없으면 살수 없다는 것이 할아버지대로부터 내려오는 우리 가정의 철학이기도 하다고 하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조상전래의 인정과 선량성, 미덕을 조선민족의 자랑으로 여기시고 우리 인민을 위한 가장 훌륭한 인덕의 정치를 베푸시였습니다. 인민에 대한 수령님의 사랑은 인민대중과 생사고락을 같이하시고 인민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숭고한 사랑입니다. 인민에 대한 수령님의 지극한 사랑이 있어 우리 나라에서 참다운 인민의 정치가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모든 인민적 시책은 인민에 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입니다.

우리 수령님께서 지니고 계시는 숭고한 인덕은 동지들에 대한 끝없는 사랑에서 뚜렷이 표현되고있습니다. 동지를 위해 죽을수 있는 사람만이 좋은 동지를 얻을수 있다고 하신 김형직선생님의 말씀을 깊이 간직하시고 동지를 얻는 것으로부터 혁명투쟁을 시작하신 수령님께서는 동지를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였으며 동지가 많은 것을 가장 큰 재부로, 동지들의 사랑과 믿음을 받는 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시며 혁명적 동지애의 가장 아름다운 역사를 수놓아 오시였습니다. 수령님의 숭고한 사랑에 의하여 우리의 수백만 당대오가 자라나고 무적의 혁명무력이 꾸려졌으며 동지적 사랑과 혁명적 의리로 굳게 단합된 우리 사회의 일심단결이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내일 계속됩니다)

2권 제6장

시련의 해

1. 남만으로
2. 마지막 모습
3. 기쁨과 슬픔
4. 합작은 불가능한가?
5. 단합의 이념아래
6. 구국군과 함께
7. 소사하의 가을
8. 라자구등판에서

4. 합작은 불가능한가?

안도와 통화를 련결하는 반일인민유격대의 행군로정에는 우리 나라의 북부국경지대에서나 볼 수 있는 험준한 산악들과 계곡들이 많았다. 안도에서 무송까지는 장백산줄기가 뻗어있었고 무송에서 통화까지는 삼차자령이나 삼도로랴령과 같은 험한령들로 이어진 룡강산줄기가 첩첩히 가로놓여 있었다. 이런 산줄기들을 타고 부대는 한달 가까이 힘에 겨운 행군을 계속하였다. 낮에는 적들의 경계가 미칠 수 있는 대도시를 피해 산악행군을 하고 밤에는 조선사람들이 살고 있는 부락들에 들어 끊임없는 정치공작과 전투훈련으로 바쁜 시간을 보냈다.

우리는 혁명조직들과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무송에서도 며칠동안 체류하였다. 거기서 그 때 장울화도 만나보았다. 장울화도 우리의 체류기일이 짧은데 대하여 매우 아쉬워하면서 학창시절의 자기와의 우정을 생각해서라도 무송에 이틀이나 사흘쯤 더 있다가 가 달라고 요청하였다. 나도 그 요청에 응하고싶은 생각이 없지 않았다. 무송은 나와 수십수백갈래의 사연으로 얽혀져있는 의미깊은 고장이였다.

그러나 나는 예정대로 사흘인가 닷새만에 부대를 출발시키였다. 지난날에 대한 추억이 아무리 소중하고 발목을 잡아당기는 인정이 아무리 눈물겨운 것이라 하더라도 량소봉사령과의 해후를 위해서는 섭섭한대로 장울화와도 헤어지지 않으면 안되였다.

무송에서 통화까지는 500리가량 된다고 하였다. 가면 갈수록 심산이라는 말과 같이 산세는 점점 더 사나와 지고 행군도 힘들어졌다. 생소한 메봉우리들과 골짜기를 타고 수백리산길을 강행군으로 돌파하는 사이에 대원들은 모두 녹초가 되였다. 부대내에서는 환자들이 속출하기 시작하였다. 나 역시 계속되는 행군으로 어지간히 지친 몸이 되였다.

원정대가 통화까지 갔을 때 차광수가 문뜩 나한테로 달려와 이도강에서 하루나 이틀쯤 숨을 돌리다가 통화로 들어가자고 제의하였다.

≪무송에서도 더 있고 싶은 것을 꾹 참고 500리를 내쳐 달려왔는데 통화를 코앞에 두고 휴식이라니 웬말이요? 차광수답지 않구만.≫

나는 차광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를 어렴풋이 짐작하면서도 그 주장에 동조할 수가 없어 일부러 이렇게 물었다.

차광수는 대답에 앞서 안경을 벗어 손수건으로 닦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가 자기 주장을 완강하게 고집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보여주는 특이한 습관이였다.

≪사람들이 모두 지칠대로 지쳤소. 대장동무자신도 극한점에 도달했구. 아니라고 변명하겠지만 내 눈은 속이지 못하오. 환자들이 생겨서 겨드랑이에 끼고 행군하는 형편인데 이꼴로 가서야 량세봉사령한테 어떻게 명함을 들이대겠소.≫

≪량세봉선생은 그만한 사정도 통찰하지 못할 옹졸한 사람이 아니요.≫

≪사령은 안목이 높아서 그렇다하고 수백명이나 된다는 부하들의 눈은 어떻게 하겠소. 우리를 보구 오합지졸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면 야단이 아니요. 천리를 행군해온 공이 나무아미타불이 될가봐 겁나오.≫

이쯤되면 차광수의 고집을 누구도 휘여낼 수 없었다.

나는 차광수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우리가 꾀죄죄한 몰골로 통화에 나타나면 독립군들이 우리를 시답지 않게 볼 수 있는 우려가 얼마든지 있었다. 그들이 만일 반일인민유격대를 얕보게 되면 모처럼 계획했던 합작도 우리의 의도대로 성사시킬 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차광수가 제기한대로 이도강에서 하루나 이틀쯤 숨을 돌리다가 원기를 회복한 다음 질서정연하고 생기발랄한 모습으로 통화시내로 행진해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나는 전부대가 행군을 정지하고 이도강에서 숙영할 것을 명령한 다음 량사령에게 련락원을 파견하여 독립군과의 합작을 위해 반일인민유격대가 안도를 떠나 통화근방에 도착하여 휴식중이라는 것을 통지하였다.

우리는 통화에 간 련락원을 기다리며 이도강마을에서 로독을 풀었다.

지휘부는 물레방아간집에 자리를 잡았다.

물레방아간집 늙은이들은 성의를 다하여 나를 돌보아주었다. 내가 독립군과의 사업에 필요한 행동조례를 해설해주기 위해 지휘부에 대원들을 여라문명 불러다가 정치상학을 하는 것을 보고 그 집 령감은 백성의 성의를 몰라준다고 하면서 나를 몹시 나무랐다.

≪옛 성현들이 이르기를 사람이 말을 많이 하면 기를 상하고 지나치게 기뻐하면 감정을 상하고 성내는 일이 많으면 의지를 상한다고 했네. 생각을 적게 하고 걱정을 적게 하고 일을 적게 하고 말을 적게 하고 웃음을 적게 웃으라는 것이 예로부터 내려온 섭생의 본도고 리치란 말일세. 그런데 대장처럼 말을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해서야 기는 어떻게 보존하며 병은 어떻게 털어버리란 말인가. 항차 자네들이야 조선을 독립시킬 군사들이 아닌가.≫

로인이 머리에 새겨두기조차 힘든 수십가지의 양생법을 진지하게 설명해주면서 대사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데 장래를 생각해서 몸을 잘 돌봐야 하지 않는가고 력설하는 바람에 나는 부득불 정치상학에서 손을 떼고 그것을 차광수에게 넘겨주지 않으면 안되였다. 우리는 로인의 말을 듣고 그가 허준의 숭배자라는 것과 로인이 우리들에게 장시간 해설해준 것이 바로 ≪동의보감≫에 있는 섭생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였다. 어디서 어떻게 섭렵한 지식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로인은 보양법에 대한 조예가 상당한 정도로 깊었다.

우리가 이도강을 떠날 때 로인은 참지에 싸두었던 련밥과 꿀에 반죽했다가 말린 구기자환 여러 봉지를 차광수에게 맡기면서 많지 않은 약이지만 대장의 몸을 보양하는데 써주면 고맙게 생각하겠다고 하였다.

로인이 자신의 섭생을 위해 모처럼 지어둔 보약을 가볍게 받을 수가 없어 나는 그 약을 조심스레 사양하였다.

≪로인님, 성의는 고맙습니다만 저는 그 약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젊은것들이야 기가 허하거나 혈이 모자라서 못살겠습니까. 한평생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락을 보지 못한 로인님께서나 이 약을 쓰시고 조선이 독립되는 날까지 장수하십시오.≫

로인은 그 말을 듣자 가볍게 성을 내면서 우리한테 막무가내로 약을 밀어보내였다.

≪우리야 다된 인생인데 보약을 쓰면 뭘하고 안쓰면 뭘하겠나. 그렇지만 자네들이야 조선을 독립시킬 선봉대가 아닌가. 우리가 썩박드덜기라면 자네들은 청송록죽이란 말일세.≫

우리는 통화에 갔던 련락원이 되돌아와 나의 서신을 받고 반일인민유격대의 통화입성을 환영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것과 그가 부하들에게 유격대 환영준비를 잘할데 대한 과업을 주었다는 소식을 전하기 바쁘게 이도강을 떠났다. 이도강 체류기간에 리발을 하고 바지에 주름까지 세운 반일인민유격대원들은 지휘관의 구령에 따라 정보행진도 하고 때로는 혁명가요도 부르면서 통화시가를 향해 위풍당당하게 행진해갔다.

나는 행길에 나서자 김일룡에게 대렬을 맡기고 차광수와 함께 량세봉과의 담판계획을 다시금 상세하게 토의하였다. 나의 모든 사색과 상념은 미구에 맞다들게 될 독립군과의 사업에 집중되고 있었다. 물레방아간집 로인이 생각도 걱정도 일도 말도 다 적게 하고 지어 웃음까지 적게 웃는 것이 섭생의 본도라고 귀에 못박히게 강조하였지만 나는 도저히 그처럼 구속이 심한 섭생법을 지켜낼 수가 없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고 사람들이 아직 한번도 걸어보지 못한 전인미답의 길을 개척해가는 독특한 창조과정이었으므로 누구보다도 사색을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의논을 많이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가장 관심한 것은 반일인민유격대와의 교섭에서 량세봉이 어떤 태도로 나오겠는가 하는 것이였다. 이 교섭의 결과에 대하여 차광수는 처음부터 미심쩍은 태도를 취하였지만 나는 시종일관 락관적인 예측을 하였다.

통화시가의 전경이 눈앞에 나타나는 순간 내 머리에는 량세봉에 대한 유쾌한 일화가 불쑥 떠올랐다. 그것은 아버지가 병환에 계실 때 뜻을 같이 나눈 동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회상하면서 나와 어머니에게 여담으로 들려준 일화였다.

3.1운동전야에 량사령의 향촌에서는 빈농민들을 망라한 계가 중심이 되어 밭을 논으로 푸는 개답공사를 벌이었다. 량사령의 집도 이 계에 망라되어있었다. 소출을 많이 내는데서는 논이 밭보다 훨씬 더 생산적이라는 것을 상식으로 알고 있던 그는 이 개답공사를 적극 환영하였다. 그런데 계의 상층을 차지하고 있던 로장파들이 논농사가 파악이 없다는 구실을 내걸고 개답공사를 완강하게 반대해나섰다. 로장파와 소장파사이에는 봄씨붙임을 앞두고 련일 계가 생긴이래 처음 보는 아귀다툼이 벌어졌다.

소장파 젊은이들은 당나귀발통 같은 로장파 늙은이들의 고집을 도저히 휘여낼 수 없었다. 계에서는 그해에도 파종기가 오자 젊은이들이 논으로 풀지 못해 안달아하는 밭에 조와 보리를 심었다. 늙은이들은 계의 농사가 젊은 것들에게 롱락당하지 않고 예전대로 순조롭게 되어가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면서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소장파의 우두머리였던 양세봉은 자기의 주장을 관철할 기회를 노리었다. 모내기철이 되어 사방에서 개구리가 울던 어느 밤 소를 끌고 들에 나간 그는 조와 보리 싹이 한창 푸름푸름 자라는 여러 뙈기의 밭을 쥐도 새도 모르게 다 논으로 갈아버리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조와 보리가 무럭무럭 자라던 밭이 하루밤사이에 논으로 변하여 물까지 출렁거리는 것을 본 늙은이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여 ≪생벼락을 맞을놈, 계의 농사는 네가 다 망쳐놓았구나. 금년 농사를 망치면 거지가 될줄 알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조나 보리를 심으면 아홉섬밖에 나지 않던 그 뙈기밭에서 량세봉은 그해 가을 스물넉섬의 소출을 냈다.

계와 늙은이들은 깜짝 놀라서 ≪그저 세봉이가 하여튼 난놈은 난놈이웨다.≫하고 혀를 찼다. 그후부터 량사령의 향촌과 그 린근마을에서는 논농사를 하는 집들이 대폭적을 늘어나기 시작했다. 계를 쥐락펴락하던 상투쟁이 령감들도 량세봉의 말이라면 고분고분 다 들었다.

통화를 지척에 둔 로상에서 이런 일화가 내 머리에 떠오른 것은 무엇때문이였을까. 아마도 그것은 량사령과의 담판이 성공적으로 끝날것이라는 자기의 예상을 합리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내자신이 사색을 집중하였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량사령은 3.1운동전야에 고향(철산)을 떠나 남만의 흥경현으로 들어갔다. 우리 아버지가 량세봉을 맨 처음으로 만난곳이 바로 이 흥경땅이였다.

그 당시 그는 통의부에서 겸무관으로 활동하였다. 정

독립군사령 량세봉

의부가 나온 다음에는 중대장으로 임명되어 일약 오동진 사령의 총애를 받는 중견간부가 되였다. 그의 중대주둔지가 바로 무송이였다. 그래서 나도 량세봉을 만날 수 있었다.

우리가 팔도구에서 무송으로 이사한지 얼마 안되어 량세봉은 다시 흥경현을 소환되어 가고 그대신 장철호가 그의 후임으로 무송에 왔다. 3부의 통합으로 국민부가 태어났을 때 독립군의 지도간부들은 성품이 바르고 실행력이 강하며 민중의 촉망이 높은 량세봉에게 군통수권을 맡기였다. 량세봉은 군부에서 뿐만 아니라 3부의 원로중신들이 모인 조선혁명당안에서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량사령은 늘 자기와 김형직은 결의 형제라고 하면서 나를 친구의 자식으로 극진하게 사랑해주었다. 오동진, 손정도, 장철호, 리웅, 김사헌, 현묵관과 함께 길림에서 나를 경제적으로 잘 후원해준 사람이 바로 량세봉이였다.

왕청문사건이 있은 후 국민부상층에 대한 우리의 감정이 몹시 나빠지고 또 그 반동화된 단체의 군부수뇌인 량세봉과도 오래동안 상면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지만 나는 나에 대한 량사령의 사랑과 믿음이 변치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이 모든 것은 어느것이나 다 인간 량세봉, 애국자 량사령에 대한 호감을 주는 회상들이였다. 우리의 합작활동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질수 있는 그런 과거에 대하여서는 구태여 추억하지도 않았다.

나는 될수록 우리의 담판전망을 락관적으로 조명해줄수 있는 그런것들만을 회고하려고 애썼다. 그것은 담판의 전도를 어둡게 할 수 있는 불리한 증거들로 자기자신을 심리적으로 학대하지 않으려는 방어본능의 심리작용이였는지도 모른다.

통화를 비롯한 동변도의 20개 현은 모두 동변도 진수사 우지산의 관할하에 있었다. 그는 한때 장작림으로부터 제30군 군장으로 임명받은바도 있는 장령이였으나 1930년 6월의 대도회의 반란진압에서 솜씨를 발휘하지 못하여 장학량의 신용을 잃었다. 우지산은 동변도 주요 지점들에 1개 려단 규모의 성방위군을 배치하고 이 일대의 최고통치자로서 군림하였는데 9.18사변후에는 동변도 보안위원회를 조직하고 그 사령이 되었으며 관동군수뇌들과 련계를 가지면서 봉천성의 괴뢰정권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관동군은 우지산의 협력을 담보로 이 지구에 대병력을 투입하지 안호 독립수비대와 만주국군, 경찰에 이 일대의 치안유지를 맡기었다. 관동군의 대부분 력량은 당시 북만에 쏠리고 있었다.

이런 기세를 타고 당취오의 료녕민중자위군이 량세봉휘하의 조선혁명군 부대와 함께 통화현성을 포위하였다. 오끼쯔 요시로주임을 비롯한 일본령사관 통화분관의 일본인 직원들과 가족들은 모두 이 포위속에서 오도가도 못하고 구조를 기다리게 되였다.

관동군 사령부는 통화현성이 포위되어 현지의 일본인들이 위기에 처해있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모든 병력이 북만일대에 총출동중이였으므로 다만 100명 정도의 경찰관들을 구원대로 파견하고 우지산군의 방조를 기다렸다. 우지산군은 두 대로 나뉘여서 북쪽과 봉성 방면에서부터 량, 당의 련합군을 압박하였다.

관동군에서는 이다가끼참모장을 내세워 ≪통화에 있는 일본인 여러분, 봉천에서 급히 지원부대가 래일아침 도착하므로 잠시 완강히 견지하여 주십시오.≫하는 방송을 하게 하였다.

이처럼 9.18사변후 국제련맹사단의 만주파견과 때를 같이 하여 봉천성일대의 반만항일군은 도처에서 일본침략군대와 만주괴뢰군대를 위협하였다. 이런 때여서 통화현성을 장악하고 있는 조선혁명군과 자위군의 사기는 매우 높았다.

반일인민유격대가 통화현성에 입성한 것은 6월 29일 저녁이였다.

독립군들은 시내곳곳에 ≪반일인민유격대를 환영한다!≫,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자!≫, ≪조선을 독립시키자!≫등의 구호를 써붙이고 우리 일행을 성대하게 환영하면서 우리를 맞이하였다. 량세봉은 반일인민유격대의 통화입성을 독립운동으로 확대발전시키는데서 하나의 전환적계기로 삼으려고 했던 것 같다.

안도에서 온 우리 일행은 즉시에 두패로 나뉘여 류본초가 데리고 온 구국군병사들은 자위군사령부 대표의 안내를 받아 중국사람들의 집으로 가고 내가 인솔하고 있는 반일인민유격대원들은 조선사람들이 사는 집들에 분숙하였다.

독립군대원들은 반일인민유격대원들의 숙소에 안내한 후에도 돌아가지 않고 우리와 함께 어울려 시간을 보냈다. 우리 부대에 대한 그들의 반영이 예상외로 대단히 좋았다. 그들은 안도에서 유격대가 온다는 련락을 받고 날창이나 화승대를 멘 촌바우들을 상상했었는데 만나고보니 멀쑥한 신사군대라고 하면서 부러움을 감추지 못하였다.

그날밤 나는 량세봉의 집을 방문하였다.

량사령은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나는 먼저 량사령부부의 안부를 묻고 어머니가 보내는 인사를 전해주었다.

≪어머니가 안도에 가신 다음에도 선생님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너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량사령선생이 친구들과 함께 장례를 치르어주고 너를 화성의숙에도 추천해보냈는데 그 은공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량사령은 그 말을 듣자 사양의 뜻으로 손을 가로 흔들었다.

≪나하구 자네 아버지야 의형제간인데 은공이구 뭐구 할게 있나. 성주 아버지한테서 받아온 편달을 생각하면 오히려 그 신세야말로 백골난망이라고 할 수 있지. 자네 어머니는 좀 어떤가? 안도에 이사한 다음 속탈로 고생을 많이 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네, 병이 펴그나 깊어진 것 같습니다. 요새는 일하는 날보다 누워계시는 날이 더 많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이처럼 범상한 대화로부터 시작되었다.

나는 통화시내에 들어설 때 받은 인상을 피력했다.

≪사령님의 부하들이 수백명이나 거리에 떨쳐나와 박수를 쳐주면서 환영을 해줄 때 우리는 모두가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였습니다. 독립군의 얼굴색이 밝은 것을 보니 우리의 마음도 가벼웠습니다.≫

≪우리 부하들이 싸움은 변변히 하지 못해도 손님대접만을 소홀히 하지 않네.≫

≪너무 겸손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안도를 떠나기전에 사령님의 부대가 당취오의 료녕민중자위군과 합세하여 통화현성을 포위하고 손쉽게 차지하였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건 뭐 그리 자랑할 전과가 못돼. 자위군이 수만명이나 되는 데 성시 하나도 공략하지 못하면야 무슨 명분으로 밥을 먹겠나.≫

량세봉은 이렇게 말하면서도 통화현성포위전의 전과정에 대하여 상세하게 이야기해주었다.

그날은 그런 정도로 대화를 나누고 집에서 하루밤 잤다. 나도 찾아온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고 량사령도 그런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다. 량세봉이 우리의 원정목적을 묻지 않는 것이 좀 불안스럽기도 하였지만 나는 나를 환대해주는 그의 진심에 넘치는 행동을 보고 담판이 잘돼갈것이라는 당초의 확신을 더욱 두터이하였다.

우리는 다음날 아침식사후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야기의 꼭지를 뗀 것은 량사령이였다. 그가 그때 나에게 한 첫 말은 이런것이였다.

≪대장도 알다싶이 지금 만주땅은 벌둥지가 됐네. 숱한 벌들이 일본이라는 불청객을 쏘겠다고 독을 물고 일어났네. 당취오, 리춘윤, 서원원, 손수암, 왕봉각, 등철매, 왕동헌 이건 다 동변도의 벌들이구 동만과 북만에서는 또 얼마나 많은 벌들이 일어났나. 이런 때에 우리두 합세해서 잘 싸우면 이길수가 있다고 보는데 대장생각은 어떤가?≫

그가 한 말은 우리의 원정목적과도 일치하는 것이였다. 량사령이 스스로 합작에 대해서 모색하고 그것을 주동적으로 우리에게 제기한다는 것은 참으로 고맙고 다행한 일이였다.

나는 독립운동전반을 대국적 견지에서 부감하는 량사령의 높은 안목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그의 제의를 흔연히 받아들이였다.

≪합세해서 싸우자는 사령님의 말씀에는 저도 동감입니다. 저희들도 사실 이 문제를 의논해보려고 사령님을 찾아왔습니다. 조선의 무장부대들이 서로 합세하고 중국의 무장부대들도 서로 합세해서 조중 두 나라 애국자들과 인민들이 한덩어리가 되어 싸우면 능히 일제를 타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량세봉은 그 말을 듣자 미소를 지었다.

≪대장이 동감이라면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서로 진지하게 의논해보세.≫

≪그런데 사령님, 시국은 단결을 요구하는데 우리 민족내부는 유감스럽게도 단결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의 내부도 단결이 안되고 민족주의자들이 내부도 단결이 안되고 또 민족주의자들과 공사주의자들 호상간에도 단결이 안되고 있으니 이렇게 해가지고서야 일본이라는 강적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건 다 좌익에 섰다는 층이 정치를 잘못하는 탓이야. 대장도 좌익이라니 그런 물계는 잘 알겠지만 그들이 투쟁을 과격하게 내밀기 때문에 인심을 잃었단 말일세. 소작쟁의를 해서 농사군들을 폭군으로 만들구, 무슨 적색 5월이요 해가지고서는 지주를 처단하구 이렇게 하니까 중국사람들이 조선사람들을 소닭보듯이 하거든. 이건 순전히 공산주의자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의 실책이야.≫

그것은 공산주의자들이 조직해온 온갖 폭력에 염증을 느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이였다. 나는 그가 로동자, 농민들을 적대시하고 지주나 자산가들을 동정하는 데로부터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량세봉자신도 독립운동에 관여하기전까지는 지독한 령세농민으로 고생을 많이 해온 사람이였다. 그는 선달그믐께부터 매번 지주의 빚독촉 때문에 지긋지긋하게 단련을 받아오군한 채무노예에 가까운 소작농이였으며 무시래기에 피쌀을 쑨 죽으로 기아의 해들을 기적적으로 돌파해온 빈농민의 후예였다.

나는 또한 그가 공산주의자들이 조직한 폭력투쟁을 비난하는 것은 공산주의리념 자체를 반대하기 때문도 아니며 또 그 반대의 리념이 자본주의사상을 옹호하기 때문도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그가 조소하고 비판하는 것은 일부 공산주의자들의 운동방식이나 투쟁방법이였지 공산주의리념 그자체는 아니였다. 그러나 방법에 대한 립장과 태도는 곧 리념에 대한 인식과 관점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었다.

초기공산주의자들이 대중운동을 지도하는데서 범한 좌경적오류는 유감스럽게도 새 사조를 동경하던 많은 사람들의 넋속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애정을 추방하는 가슴아픈 결과를 빚어냈다.

나는 량세봉사령과의 담화를 통해서도 만주지방에서 공산주의기성세대가 범한 과오의 후과가 얼마나 막대한가 하는 것을 다시한번 새삼스럽게 절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일 계속)

우리 수령님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탄생 90돐에 이 글을 삼가 드린다

로동신문 정론 - 주체91, 4월 13일

산처럼 덧쌓여 지는 그리움을 안고 4월이 왔다.

해마다 4월이 오면 다함 없는 흠모와 더욱더 사무쳐 지는 그리움속에 이 나라 천만장병들과 인민들이 한결 같은 목소리로 찾고 또 찾는 심장의 부름이 있다.

≪우리 수령님≫.

어버이수령님 생존해 계실 때에도 이렇게 스스럼없이 부르며 따랐고 수령님 우리 곁을 떠나신 이후에도 이렇게 목 메여 부르며 수령님 가리키신 주체의 한길로만 걷고 또 걸어 온 우리들이 오늘에 다시금 이 부름을 두고 깊이 생각하며 가슴 뜨거워남을 금치 못하는것은 과연 무엇때문인가.

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 수령님≫.

온 나라 천만 자식들의 이 목 메인 부름에는 우리 수령님의 절세의 위인상과 불멸의 업적이 어려 있고 우리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 우리 인민의 영원한 혼연일체가 비껴 있다.

뜻 깊은 태양절을 맞는 조국이여, 인민이여. 눈물 없이는 더듬을수 없는 우리 수령님의 전무후무한 생전과 영생의 90성상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더 깊이 알고 무엇을 더 깊이 느끼며 무엇을 더 깊이 확신하게 되는것인가.

우리 장군님 깨우쳐 주신 ≪우리≫라는 말의 참뜻을 다시금 깊이깊이 되새기며 이전에는 미처 다 헤아리지 못했던 수령님의 인민을 위한 한생과 불멸의 업적의 위대함을 심장으로 절감하며 우리 이 글을 쓴다.

(1)

≪우리 수령님≫, 이 친근한 부름은 진정한 인민의 수령에게 우리 인민이 드리는 최대의 존칭이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의 령도자에게 있어서 인민의 지지와 사랑을 받는것보다 더 큰 영예와 자랑은 없다고 하지만 묻노니 력사여, 그 어느 시대, 그 어느 나라에 온 나라의 군인들과 인민들로부터 ≪우리≫라는 고귀한 존칭으로 불리우며 인민들의 다함 없는 사랑과 신뢰, 그리움을 한데 모은 인민의 진정한 수령이 있었는가.

≪우리 수령님≫.

우러러 부를수록 우리 수령제일주의로 부풀어 오르는 가슴에 우리의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따라 더더욱 뜨겁게 안겨 온다.

≪우리 수령님은 동서고금에 일찌기 없었던 위대한 수령이시였습니다. ≫

그렇다. 력사가 알지 못하는 어버이수령님의 그 한 없는 위대성을 어디에 비기면 다 칭송할수 있고 무슨 존칭이면 그이에 대한 우리의 한 없는 고마움과 감사의 정, 다함 없는 경모와 신뢰의 정을 다 담을수 있을것인가.

≪위대한 정치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위대한 령도예술가≫,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

이 모든 존칭들은 물론 20세기와 더불어 흘러 온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에 대한 력사의 응당한 평가인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 모든 존칭앞에 언제나 ≪우리≫라는 호칭을 부이는것을 어길수 없는 습벽으로 여겨 왔다.

경애하는 그이를 존함이나 군사칭호로 우러러 부를 때에조차 그앞에 먼저 ≪우리≫라는 호칭을 부여 온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정녕 ≪우리≫란 무엇인가. 이 말속에 과연 무슨 뜻이 깃들어 있어 우리 인민의 심중에 그리도 정다운 부름으로 자리 잡게 되였으며 우리 장군님 그리도 류다른 애착심을 가지고 자주 외우군 하시는가.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과 떼여 놓을수 없는 하나로 된 고마운 존재에 대하여 자기자신처럼 생각하며 부르는 말이 ≪우리≫라고 한다.

진심으로 인민을 귀중히 여기고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 헌신하는 인민의 복무자에게 인민이 주는 이 고귀한 칭호, 그것은 권력으로 얻을수 없고 돈으로도 살수 없다.

력사에는 위인들이 많았지만 혁명의 수령, 나라의 령도자가 전체 군인들과 인민들로부터 ≪우리≫라는 부름과 함께 그렇게도 진심으로, 그렇게도 열렬하게 칭송 받아 온 실례는 고금동서에 우리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밖에 없다.

≪우리 수령님≫, 이 부름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순정이며 천만 심장의 매혹이다.

그것은 고난과 시련속에서 생사를 같이하며 피와 정을 나눈 절세의 위인에게만 주는 인민의 완전무결한 믿음이다.

≪우리 수령님≫, 이 땅에 생을 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모의 정을 안고 부르는 이 자애로운 말에는 우리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의 ≪이민위천≫의 한평생이 비껴 있다.

돌이켜 보면 우리 인민은 과연 언제부터 수령님의 그 위대한 존함앞에 ≪우리≫라는 부름을 붙여 왔으며 그것을 최대의 존칭으로, 가장 사랑하는 경어로 심장깊이 간직하게 되였는가.

≪우리 성주≫.

이 호칭은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신 수령님을 우러러 우리 인민이 드린 소박한 존칭이였다.

인민을 위한 나라의 기둥이 되라는 의미에서 우리의 김형직선생님 몸소 지어 주신 그 존함앞에 우리 인민은 어찌하여 그때 벌써 ≪우리≫라는 고귀한 존칭을 부여 드린것인가.

≪우리 성주≫, 그 존칭만 부르면 오늘도 눈에 삼삼히 떠오른다.

열네살의 어리신 나이에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 오지 않으리라 비장한 맹세를 다지시며 압록강을 건느시던 우리 수령님의 그 잊을수 없는 모습이.

아버님을 잃고 어머님마저 돌아 가신 타향에 어린 두 동생을 남겨 두고 나라 찾는 원정의 길을 떠나시지 않으면 안되였던 우리 수령님의 그 가슴 저미는 심중의 세계를 ≪우리 성주≫, 그 부름이 다 말해 주고 있다.

이웃마을도 멀다 할 그 어린 나이에 두나라 무인지경을 넘나드신 ≪배움의 천리길≫과 ≪광복의 천리길≫이 그 부름속에 비껴 있고 초기혁명활동의 그 진지한 탐구와 투쟁의 낮과 밤이 그 호칭속에 어려 있다.

아직은 인민을 위해 해놓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이 더 많던 혁명의 개척기에 남들은 한생을 다 바쳐서도 얻을수 없는 그 위대한 존칭을 받으신분이 바로 우리 수령님이시다.

어찌 그때뿐이랴.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인민이 삼가 드린 ≪우리≫라는 고귀한 칭호를 한평생 변함없이 빛내여 오시였으니 여기서도 우리는 인민의 수령으로서의 우리 수령님의 위대성을 얼마나 가슴 뜨겁게 절감하게 되는것인가.

≪우리 한별≫.

캄캄한 밤하늘에 새별로 솟아 주체의 홰불로 앞길을 밝히시던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청년공산주의자들과 우리 인민이 부른 빛나는 호칭,

비록 초년기의 애젊은 청년혁명가이시지만 그 높은 뜻과 출중한 인품에 매혹되여 나이와 투쟁경력, 국적을 초월하여 열혈청년들과 인민들이 구름처럼 모여 들던 카륜과 고유수, 길림의 거리와 마을들이여, 너도 오늘에는 가슴을 열어 헤치고 그날의 환희와 격정을 말해야 할것이 아닌가.

숭배로 불 타는 주먹을 내흔들며 다진 맹세 변치 말자 한별을 우러러 보네라고 목메여 부르던 ≪ㅌ. ㄷ≫성원들의 그 불 타는 마음.

아직은 그이께서 당총비서도 국가주석도 아니시던 그때 그이를 민족의 태양으로, 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받들어 모신 이 나라 청년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의 순결무구한 수령숭배의 세계가 ≪우리 한별≫이라는 그 부름속에 얼마나 뜨겁게 어려 있는가.

무장에는 무장으로라는 구호를 높이 드시고 당보다 먼저 군대를 창건하시고 총대로 조선혁명을 개척하신 위대한 수령님.

한두달도 아니고 한두해도 아닌 20성상을 하루와 같이 혈전만리를 헤치시며 강도일제를 때려 부시고 이 땅에 광복의 새봄을 안아 오신 만고의 영웅을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의 **김일성**장군≫이라고 부르며 환호하였다.

장백의 험한 산발 눈보라 헤치시며 혁명의 수만리길 걸어 오신 수령님의 그 전대미문의 헌신과 로고를 생각하며 고르고 골라도 ≪우리의 **김일성**장군≫이라는 부름보다 더 좋은 존칭이 없어 송구스럽고 안타까웁던 우리 인민이였다.

가렬처절한 전화의 나날 전쟁승리를 위해 침식도 잊으시고 불비 쏟아 지는 전선길에서 싸우는 전사들과 함께 계신 수령님을 우러르며 온 나라가 목 메여 부르던 그 이름도 빛나는 ≪우리의 **김일성**장군≫.

우리 장군님 오늘도 가슴 저미는 아픔안으시고 회고하시는 전후의 그 어렵던 나날, 수령님께서는 내각수상의 직책을 지니시고 복구건설의 진두에 나서시였다.

가슴 적시며 안겨 온다.

벽돌을 이고지고 달리던 건설장이며 폭탄구뎅이를 메우고 씨앗을 묻던 들판에서 인민들과 언제나 함께 계시며 복구건설에서도 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여 주어야 한다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안겨 주시던 우리 수령님의 그 거룩한 모습이.

오늘도 ≪우리 수상님≫이라는 말만 외우면 눈물부터 앞선다는 그날의 체험자, 목격자들인 전쟁로병들과 복구건설자들이여, 말해 보라.

우리 수령님 세월에 앞서 머리에 흰서리가 내리기 시작한것이 과연 전쟁과 복구건설의 그 엄청난 중하때문만이였던가.

정전직후의 어느 날 나는 전쟁쯤 해서는 늙지 않는다고, 내가 늙는것은 종파놈들때문이라고 하시던 수령님의 말씀이 가슴에 젖어 든다.

안팎의 원쑤들의 도전을 짓부시고 주체확립과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위해 우리 수령님 얼마나 크나큰 로고와 정신적고충을 겪으셨던가.

≪우리 수상님≫, 정녕 이 존칭만 부르면 수상님, 그래도 우리가 이기지 종파놈들이 이기겠습니까, 우리는 수상님을 지지합니다라고 하던 태성할머니의 그 목소리가 뜨겁게 울려 와 오늘도 눈굽을 적시는 우리들이다.

언제부터였던가, 우리모두가 어버이수령님을 ≪우리 수령님≫이라고 다함 없는 존

경을 담아 부르기 시작한것은.

일찍부터 인민을 위한 길을 우리 장군님과 함께 걷고 걸으시며 조선혁명의 백년천년 앞날을 구상하시고 혁명의 계주봉을 굳건히 넘겨 주신 수령님의 그 고마움에 목메여 우리 군대와 인민이 부른 존칭이 바로 ≪우리 수령님≫ 아니던가.

조국과 인민, 세계와 인류를 위하여 하실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시고도 우리 수령님 앞날의 일을 미리 예견하신듯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정력적으로 활동하시다가 사무실에서 순직하시였으니 인류력사에 이런 인민의 수령이 과연 그 언제 있었는가.

사람들이여, 우리 수령님 지상의 어느 지점, 력사의 어느 한 시점에 머무르신다고 생각지 마시라.

그이는 사랑하는 인민들과 함께 세기를 넘어 세월을 걸으시는분.

력사도 사회주의조국도 인류의 미래도 그이 품에 태여나 그이 가리키신 주체의 한길에서 꽃 펴나거니, 누가 감히 수령님의 한생을 80여성상이라고 말하는가.

이 세상에 영원한 수령은 오직 우리 수령님 한분뿐이시다. 이것이 바로 5천년 우리 민족사의 력사적총화이며 우리 민족 매개인의 인생총화일뿐아니라 우리 인민이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부르게 될 신념의 노래, 의지의 노래이다.

≪우리 수령님≫, 이는 인민의 수령에게 인민이 드리는 최대의 표창, 최대의 경례, 최대의 축하.

천만년 세월은 흐르고 후손은 만대에 바뀌여도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이보다 더 나은 존칭은 결코 인정하지 않을것이며 이 세상 그 어떤 호칭과도 절대로 아니 바꿀것이다.

(2)

인민이 령도자에게 드리는 존칭에는 자기 령도자를 받드는 인민의 고유한 사상감정이 함축되여 있다.

우리 인민이라면 누구나 ≪우리 수령님≫이라는 부름만 들어도 가슴 들먹이며 뜨거운 눈물을 금치 못하는것은 거기에 우리 인민만이 간직하고 있는 한없이 순결한 체험의 세계가 담겨 져 있기때문이다.

≪우리 수령님≫, 이 위대한 존칭에는 우리 수령님이 세상에서 제일이시라는 우리 인민의 제일긍지, 제일자부심이 넘쳐 흐르고 있다.

≪우리≫라는 부름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에 대한 제일호칭이다.

위인은 위인이 알고 인민이 안다고 하지만 우리 장군님처럼 우리 수령님을 잘 아시고 우리 인민처럼 수령님의 위대성을 심장으로 절감하고 있는 인민은 없을것이다.

하지만 조국이여, 인민이여.

우리 장군님 어버이수령님의 절세의 위인상과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강조하실 때마다 자주 언급하군 하시는 우리 수령님은 우리 인민의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이시라는 말씀의 참뜻을 우리 진정 얼마나 깊이 헤아려 왔는가.

창시하신 사상의 높이에 있어서나 이룩하신 업적의 폭과 깊이, 그 불멸함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인민의 수령이 갖추어야 할 고매한 덕성과 풍모에 있어서 일찌기 력사가 알지 못하는 절세의 위인. 우러르면 우러를수록 가슴은 높뛰고 긍지는 하늘에 닿는다. 수령님 창시하신 불멸의 주체사상이 5대양 6대주를 뒤덮고 해마다 태양송가 높이 울리는 4월의 봄축전으로 성황을 이루는 나라,

우리 장군님의 위인상이 온 세상에 더욱 빛발치고 장군님 펼쳐 가시는 선군의 위력 백배해 질수록 수령님을 그리는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서 위대한 수령님 만세의 환호성이 더 높이 울리는 이 열화의 숭배.

그렇다. 생존해 있을 때는 물론이고 심장의 고동을 멈춘 이후에도 변함없이 이런 인민의 환호속에 영생하는 인민의 수령만이 ≪우리 수령님≫으로 칭송 받을수 있음을 력사여 천년만년 길이길이 전하라!

(3)

≪우리 수령님≫, 인민의 영원한 태양송가로 울리는 이 부름에는 주체혁명 새 시대의 위대한 혼연일체의 모습이 비껴 있다.

어버이수령님을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장군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진군길을 다그쳐 나가는 우리 혼연일체의 대오는 무엇으로 하여 그리도 백배하며 그 위대한 모습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고 무엇을 깊이 확신하게 되는것인가.

수령의 동지애로 개척되고 수령의 일심단결로 전진해 온 조선혁명은 그 불패의 위력으로써만 최후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그러나 대를 이어 계속되는 혁명의 길에서 선대수령이 이룩한 통일단결을 순결하게 고수하고 빛나게 계승해 나간다는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통일단결은 진정으로 자기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하기를 원하며 자기 나라를 강대한 나라로 건설하기를 바라는 모든 나라 당과 군대와 인민들에게 있어서 정치의 최고목적이며 지향이라고 말할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까지 하나의 리상으로만 여겨 왔지 실제로는 이룩할수 없는것으로 여겨 왔다.

우리는 이것을 어버이수령님을 ≪우리 수령님≫으로 영원히 높이 우러러 모시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 따라 나아가는 주체혁명의 새 시대에 와서 가장 빛나게 실현하였다.

이것은 당들과 민족들의 력사에서, 현대 정치생활에서 하나의 기적이다.

과연 어느분이 이런 기적을 안아 왔으며 우리는 어찌하여 ≪우리 수령님≫이라는 그 불멸의 존함에 **김정일**시대 혼연일체의 참모습이 비껴 있다고 그리도 긍지높이 선언하는것인가.

위대한 수령님은 조선혁명의 개척자이실뿐아니라 일심단결의 시조이시다.

혁명의 개척기에 이룩된 이 위대한 단결이 혁명위업완성을 위한 위력한 무기로 되자면 일심단결의 시조이신 수령님을 영원한 ≪우리 수령님≫으로 높이 받들어 모셔야 한다.

수령의 영생, 여기에 령도의 대가 바뀐 다음에도 영원불멸할 혼연일체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력사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생소하고도 어려운 위업이였으니, 그것을 위해 우리 장군님 얼마나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바쳐 오시였는가를 조국이여, 인민이여, 우리 눈물속에 깨닫기 시작한것은 과연 언제부터였던가.

너무도 뜻밖에 수령님을 잃고 가슴을 치며 ≪우리 수령님≫을 목 놓아 부르며 찾고 또 찾으면서도 그때는 미처 헤아리지 못하였다. 우리 장군님 어이하여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생애를 자주 돌이켜 보시는 자리에서 ≪우리 수령님≫이라는 존칭을 그리도 숭엄하게, 그리도 경모에 넘친 어조로 부르시며 수령님을 생존해 계실 때보다 더 잘 모셔야 한다고 그리도 절절히 말씀하시였는지.

오직 수령님의 영생을 위하여!

이 충성의 일편단심을 안으시고 장군님 맞고 보내신 잊을수 없는 날과 달들, 그것은 실로 력사가 알지 못한 전대미문의 그리움의 세월이였다.

깊은 한밤중에 전화종소리가 울려도 문득 수령님 걸어 오시는 전화인것만 같아 가슴 울렁이시고 쪽잠속의 꿈결에서마저 수령님의 모습 그리시며 우리 장군님 수령님의 발자취 따라 끊임없이 이어 가신 선군령도의 길, 그 길은 진정 그리움의 세계, 그리움의 힘으로 자욱자욱을 이어 간 수령영생의 길이 아니던가.

말하라, 어버이수령님을 잃고 이 땅에 흘러 온 날과 날이여,

온 나라가 비애의 눈물속에 잠겨 있던 그때 환히 웃으시는 수령님의 태양상이 과연 어떻게 태여났고 수령님 생전의 모습 그대로 계시는 세계제일의 태양궁전이 어떻게 마련되였으며 빛나는 주체년호와 태양절이 어떻게 생겨 났고 수령님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모실데 대한 ≪**김일성**헌법≫이 어떻게 제정되였는가를.

이 땅에 흐르는 날과 달을 수령님의 숨결과 수령님의 력사로 흐르게 하시고 수령님 구상하시고 념원하시던 그 모든것을 눈 부신 현실로 꽃 피워 오신분.

자신의 눈물겨운 수범으로 이 땅우에 그리움의 바다를 펼치시고 그 순정을 백배로 승화시켜 수령님의 영생위업을 실현하신 분이 바로 우리 장군님이시다.

어찌하여 우리 장군님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을 그리도 귀중히 여기시고 온 나라를 그 숭고한 그리움의 대하로 설레이게 하였는가를 격정속에 되새겨 보게 하는 명언이 여기에 있다.

≪당과 수령을 한결같이 그리며 따르는것이 곧 일심단결입니다.≫

어버이수령님을 잃고 피눈물에 잠긴 온 나라를 일떠세우시던 그 나날에 우리 장군님 하신 이 말씀.

령도의 대가 바뀐 새 시대의 혼연일체의 본질과 특징이 무엇이며 그것을 성취하는 열쇠가 어디에 있는가가 이 위대한 명언에 함축되여 있다.

그렇다. 수령에 대한 그리움이 혼연일체이며 혼연일체이자 수령영생이다.

우리 장군님 이 고귀한 진리를 걸음걸음 구현하시며 수령영생위업의 새 력사를 펼치시고 이 땅우에 수령님을 그리며 따르는 위대한 혼연일체를 안아 오셨으니 오늘 우리 수령님 이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신다면 얼마나 만족해 하시고 대견해 하시랴.

복잡다단한 세계여,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근본이 어디에 있고 혁명의 승승장구를 좌우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려거든 주체의 태양 빛나는 여기 조선의 참모습을 와보시라.

한 나라, 한민족이 끝없이 강하고 흥하는 비결이 여기에 있고 한 나라 혁명이 실패와 우여곡절을 모르고 끊임없이 전진하고 승리해 나가는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것을 력사와 세계앞에 증견하고 있는 우리의 혼연일체.

혁명은 그 위업을 개척한 수령의 사상과 위업을 고수하고 빛내여 나가는 과정인것만큼 혁명의 명맥이 끊어 지느냐, 이어 지느냐 하는 문제는 결국 선대수령을 어떻게 받들어 모시는가 하는데 귀착된다.

수령이 영생해야 일심단결이 영생하고 혁명이 영생한다.

혁명의 대가 바뀐 시기에 선대수령과 후대 수령, 인민의 호상관계문제가 전면에 나서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선대수령과 후대수령이 인민들로부터 ≪우리≫라는 존칭으로 불리울뿐아니라 인민이 또한 변함없이 ≪우리 인민≫으로 불리우는 이 위대한 일치야말로 선대수령과 후대 수령, 인민이 하나의 사상과 의지, 숭고한 도덕의리로 굳게 뭉친 영원불멸할 혼연일체이라고 우리는 주장한다.

오랜 투쟁전통을 자랑하는 당과 군대와 인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령도의 대가 바뀌자 선대수령의 위업이 하루아침에 좌절되고 혁명의 붉은기가 땅바닥에 내리워 진 나라들의 비참상이 그것을 반증하고 있다.

선대수령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천만 군민이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쳐 수령이 개척한 혁명을 빛나게 완성해 나가는 이 혼연일체야말로 이 세상 그 어느 혁명사에서도 찾을수 없고 그 어느 나라 건국사에서도 찾아 볼수 없는 전무후무한 **김정일**혼연일체이다.

이 위력한 혼연일체로 선군의 길을 헤쳐 왔기에 우리는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원쑤들의 그 모진 압살과 시련의 광풍에도 끄떡없이 어버이수령님의 한생이 어린 수령님의 붉은기를 지켜 냈고 이 땅우에 수령님 바라시던 주체의 강성대국을 보란듯이 일떠세우고 있는것이 아닌가.

주체혁명의 새 시대의 요구에 맞게 우리의 혼연일체를 철통같이 다지자.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의 업적을 끝없이 빛내이기 위하여, 강성대국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키기 위하여 총 돌격의 길에 오른 우리의 심장은 이렇게 높이 고동치고 있다.

얼마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영원한 수령으로 불리울분은 오직 우리 수령님 한분뿐이라고 하시며 수령님의 존칭을 만대에 빛내여 주신 그 숭고한 뜻이 우리의 가슴을 쾅쾅 울려 준다.

수령님 따라 시작한 주체혁명을 장군님 따라 승리로 떨쳐 가는 오늘의 선군시대야말로 우리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 우리 인민의 혼연일체를 백배로 다져야 할 때이다. 이 위대한 혼연일체의 중심은 우리의 **김정일**장군님이시며 장군님을 결사옹위하는 여기에 우리의 혼연일체의 근본이 있다.

우리 수령님께서 생전에 그토록 념원하고 당부하신 유훈중의 유훈도 **김정일**결사옹위이고 우리 인민군대가 최대의 사명으로 내세운 신념의 구호도 **김정일**결사옹위이다.

어버이수령님을 ≪우리 수령님≫이라 부르며 높이 받들어 모셔 온것처럼 전군이 장군님을 끝없이 그리며 진심으로 따르고 받드는 **김정일**제일충신이 되자.

수령과 령도자도 ≪우리≫라는 존칭으로 불리워야 하지만 인민도 령도자로부터 ≪우리 인민≫이라 불리워야 우리의 혼연일체가 억척이 된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선군정치를 맨 앞장에서 받드는 인민군대는 마땅히 우리 장군님 혁명의 기둥으로 믿고 내세우시는 ≪우리 군대≫가 되여야 한다.

≪우리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 ≪우리 인민≫의 혼연일체, 영원한 조선의 이 참모습은 태양조선의 재부중의 재부이며 이 고귀한 유산을 민족만대의 혈통으로 이어 나갈 때 우리는 영원히 백전백승하며 륭성번영할것이다.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만세!

(끝)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어버이로 모신 화목한 대가정

≪기념특강≫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위인의 풍모를 천품으로 지니시고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이시다 (제11회)
리종욱선생 - **김일성**종합대학 방송강좌 주체91, 4월 12일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먼저 시간까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사상이론적 업적과 백전백승의 영도업적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 시간부터 두번에 나누어 경애하는 수령님의 숭고한 인덕이 펼쳐놓은 참다운 인간사회에 대해서 취급하게 됩니다. 먼저 이 시간에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어버이로 모신 화목한 대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서로 믿고 사랑하고 도우면서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 다같이 삶의 보람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 사회의 참 모습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전체 인민이 수령을 친어버이로 모시고 받들며 당의 품을 어머니 품으로 믿고 따르며 수령, 당, 대중이 생사운명을 같이 하는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고 있다.≫

이상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숭고한 인덕의 체현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온 사회에 사랑과 믿음의 관계를 확립하셨고 우리 나라를 화목한 대가정으로 우리 인민을 한식솔로 전변시키셨습니다. 인류사회가 생긴 역사는 수백만년에 이르지만 그 어느 역사, 그 어느 시대에도 우리 나라와 같이 혁명의 영도자, 수령을 어버이로 모시고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 한식솔로 사는 사회는 없었습니다. 사회가 화목한 대가정이라는 것은 곧, 그 사회가 화목한 한가정의 생활윤리를 구현하고 있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화목한 가정은 사랑과 믿음이 꽃펴나는 삶의 보금자리입니다. 참다운 사랑과 믿음, 화목은 오직 사회주의사회의 고유한 인간관계입니다. 개인주의에 기초한 착취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랑과 믿음에 기초한 사회를 일떠세울 수 없으며 친혈육의 관계도 정치적 권력과 금권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그것은 착취사회, 자본주의 사회의 근본기본이 갈등과 대립, 약육강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회에서 참다운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고 반목과 대립, 타락과 범죄가 생겨나는 것이 필연적입니다. 참다운 사랑과 믿음, 화목이 사회주의사회의 고유의 인간관계라고 해서 사회주의제도가 서기만 하면 사랑과 믿음, 화목이 저절로 전사회적으로 확립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참다운 사랑과 믿음의 관계는 탁월한 수령, 위대한 영도자의 인덕정치에 의해서만 전사회적인 것으로 확립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인덕정치에 의해서 온 사회에 사랑과 믿음의 관계가 전면적으로 확립되어 화목한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 우리 나라의 현실이 확증해줍니다. 부모와 자식이 한식솔로 단란하게 모여사는 것이 가정의 정경이라면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위대한 수령, 위대한 영도자를 친어버이로 모시고 한식솔이 돼서 사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정경입니다. 그러면 위대한 수령, 위대한 영도자를 친어버이로 모시고 온 나라 전체인민이 한식솔이 되어 사는 우리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무엇보다도 온 나라 전체인민이 위대한 수령님을 정치적 생명의 어버이로, 운명의 수호자로 굳게 믿고 따르면서 수령을 중심으로 하나의 생명체, 운명공동체로 된 대가정입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육체적 생명을 준다면 수령은 인민에게 사회정치적 생명을 줍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인민 모두에게 가장 고귀한 정치적 생명을 안겨주시고 그것을 빛내어나가도록 이끌어 주신 정치적 생명의 은인이시고 친어버이이셨습니다. 우리 인민 모두에게 정치적 생명을 안겨주고 지켜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은 가장 폭넓고 뜨거운 어버이의 사랑이었으며 그 사랑에 보답하려는 인민들의 충성은 자식된 도리를 다하려는 혁명적 양심의 분출이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찍이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우리 인민들을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셨으며 항일전의 나날 우리 인민은 김장군부대라는 말 한마디만 들어도 온 가정의 명줄이라는 황소며 감자밭, 당근밭을 통째로 내놓았습니다. 더욱이 항일혁명투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혁명전사로서의 신념과 의리를 지켜 자기 한목숨 서슴없이 바쳐 싸웠습니다. 김혁, 차광수를 비롯한 청년공산주의자들과 김책, 최현, 안길, 강건동지를 비롯한 항일혁명투사들이 그러했고 그들의 뒤를 이어 리수복, 조금실을 비롯한 조국해방전쟁의 영웅전사들이 그러했으며 90년대의 영웅들인 김광철, 길영조 영웅들이 또한 그러했습니다. 정치적 생명을 주고받는 수령과 인민들의 새로운 혈연관계에 기초해서 전체인민이 위대한 수령님을 어버이로, 운명의 수호자로 굳게 믿고 영원히 따름으로써 우리 사회는 하나의 생명체, 운명공동체로 결합된 대가정으로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민에게 베푸신 위대한 수령님의 한없이 높고 따사로운 정치적인 믿음과 사랑이 낳은 고귀한 결실입니다.

우리 사회는 다음으로 전체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을 자신들의 육체적 생명까지도 책임지고 모든 생활을 보살펴주시는 어버이로 믿고 따르는 다정하고 친근한 대가정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생명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을 뿐아니라 정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의 행복한 생활과 장래를 위해 자기의 사랑과 정성을 다합니다. 어머니들은 자기 아들, 딸들에게서 아픈데가 없는가, 배가 고프지 않는가 하고 늘 근심하고 지어 밤에 잘 때는 이불을 차 던지지 않는가 하는 것까지 걱정하면서 훈련때 입을 옷을 꼭꼭 여미어 줍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잘못하는 일이 있으며 타이르기도 하고 지어 매까지 들면서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속을 태우고 품을 들이며 이끌어 줍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정성은 돌위에서도 꽃을 피우고 어머니의 사랑은 무쇠도 녹인다고 합니다. 자식들에게 대한 부모의 사랑이 이처럼 크고 깊기에 자식들은 자신들의 생활에서 있은 사소한 문제들까지도 다 부모들에게 이야기하며 지어 매를 드는 어머니의 치마폭에도 스스럼없이 담게됩니다. 가정의 이 아름다운 윤리가 우리 나라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그이의 식솔로 된 온 나라 전체인민들 사이에 관계에서 숭고한 화폭으로 펼쳐졌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모든 사색과 활동의 중심에는 언제나 우리 인민이 놓여있었고 수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어느것이나 다 인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인민을 더 잘 먹이고, 더 잘 입히며,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인민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시었고 수억만리 현지지도의 길을 걷고 또 걸으셨습니다. 친부모의 심정으로 인민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수령님께 우리 인민들은 자식들이 부모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털어놓듯이 사업과 일상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물론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사사로운 이야기도 스스럼없이 말씀 올리고 있습니다. 어버이 수령님께서 우리 인민이 스스럼없이 말씀 올린 이야기들 가운데는 자기의 정치생활과 관련한 문제도 있고 자식들의 장래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도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제기되는 사사로운 문제, 마음 속 비밀로 묻어두었던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농촌 마을 상점 판매원이 전선에 나간 남편 소식이 없어 남 모르게 속 태운 이야기도 그이께 말씀드려 어버이 수령님께서 그의 남편 소식을 알려주셨고 농촌의 한 어머니가 군대에 나간 아들에게서 온 편지를 수령님께 보여드려 몸소 자신께서 보시던 책을 그 아들에게 보내주신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한 여성이 늙은 이를 모시는데는 온돌방 이상 없다는 생활상 문제를 말씀드려 고층살림집에 우리 식 온돌방이 놓이게 된 가슴 뜨거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자면 실로 끝이 없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인민은 그 무슨 문제나 가림없이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올리는 가장 다정한 어버이와 자식간의 관계였습니다.

우리 사회는 다음으로 전체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심장 깊이 받아들이고 한치의 드팀도 없이 그 대담한 관철해나가는 충성의 대가정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교양적이고 교훈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자식들은 부모들의 가르침에서 그 진정을 새기게 되며 부모들의 뜻을 따르고 부모들이 가르쳐 준대로 일하고 생활해 나갑니다. 이것은 가정의 생활 윤리의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밑에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혁명의 은으로만이 아니라 친어버이의 가르치심으로 명심하고 그대로 살며 일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모든 사업과 생활의 확고한 지침으로 철석같은 신조로 삼고 있으며 수령님의 교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그것을 자리에서 모든 것을 재어보며 일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따사로운 품을 친어버이 품으로 여기고 수령님의 사랑과 은정속에서 값높고 보람찬 삶을 누려온 우리 인민들의 가슴속에서 자연스럽게 솟아오른 순결한 사상감정이며 생활방식입니다. 수령은 인민복을 기뻐하면서 전체 인민의 친어버이가 되여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보살펴주고 온갖 사랑을 베풀며 인민은 수령복을 자랑하면서 수령을 친어버이로 모시고 충성을 다 바쳐가고 있는 바로 이것이 화목한 대가정으로 된 우리 사회의 참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사상도 영도도 덕망도 어버이 수령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자기 운명의 수호자로 굳게 믿고 그이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있으며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 인민은 어버이 수령님의 숭고한 인덕정치에 의해서 모두가 화목한 하나의 대가정이 되였으며 오늘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에 의해서 위대한 수령, 위대한 영도자와 한식솔을 이루고 생사고락을 같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사회의 우월성과 불패의 원천이 있으며 우리 혁명이 승승장구하고 우리 나라와 민족의 끝없이 융성번영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숭고하고 고결한 덕망으로 온 사회의 참다운 공산주의적 윤리도덕 관계를 확립하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인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서로 믿고 사랑하고 도우면서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 다같이 삶의 보람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 사회의 참 모습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전체 인민이 수령을 친어버이로 모시고 받들며 당의 품을 어머니 품으로 믿고 따르며 수령, 당, 대중이 생사운명을 같이 하는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고 있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 숭고한 인덕을 지니시고 온 나라를 화목한 대가정으로 전변

≪기념특강≫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위인의 풍모를 천품으로 지니시고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이시다 (제13회)
리종욱선생 - **김일성**종합대학 방송강좌 주체91, 4월 13일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 숭고한 인덕으로 온 사회에 공산주의적 윤리도덕관계를 전면적으로 확립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천년을 헤아리는 인민대중의 투쟁사는 인간의 본성에 맞는 새로운 사회제도를 세우기 위한 투쟁인 동시에 숭고한 윤리도덕관계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인민대중은 착취와 압박이 없는 사회를 갈망해 왔을뿐아니라 서로 돕고 이끄는 새로운 도덕관계가 지배하는 이상사회를 동경해 왔습니다. 인류가 수천년을 내려오면서 그처럼 갈망하던 이상사회는 우리 나라에서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높이 모심으로 빛나게 실현되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는 숭고하고 고결한 덕망으로 온 사회에 참다운 공산주의적 윤리도덕관계가 지배하는 참다운 이상사회를 건설하셨습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무엇보다도 온 사회에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 생활원칙에 기초한 도덕윤리관계를 전면적으로 확립하셨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집단과 그에 속한 개인은 운명을 같이하고 있음으로 집단과 개인사이에는 동지애에 기초한 혁명적 의리의 도덕적 원리가 작용합니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적 원리는 바로 집단과 개인사이에 작용하는 이와 같은 공산주의적 도덕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도덕에서 집단과 개인사이에 지켜야 할 도덕문제는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것은 집단과 개인사이의 도덕문제가 사회의 성격과 진보성, 그 전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공산주의적 윤리도덕관이 빛나게 구현되어 가장 아름다운 도덕관계가 전면적으로 확립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적 원리가 집단과 개인사이의 도덕관계로 철저히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치며 헌신적으로 복무할뿐아니라 집단이 매 개인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져주고 있습니다. 조국광복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싸운 항일혁명투사들과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 청춘도 생명도 다바쳐 싸운 50년대의 영웅전사들, 그리고 경애하는 선군영도를 받들어 앞장서 달려가는 우리 시대의 영웅들은 집단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친 참다운 공산주의도덕의 소유자들입니다. 집단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숭고한 공산주의적 풍모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진짜 애국자, *대 과학자라고 높이 평가해주신 한 여성과학자의 소행을 두고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홍역예방약과 발진티부스, 장티푸스, 일본뇌염, 천연두, 광견병 예방주사약을 비롯해서 수많은 예방주사약을 만드는데 적극 기여한 공로있는 과학자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연구완성한 예방주사약들을 인민들에게 내놓기 전에 인체실험을 자신과 자기의 외동딸에게 하곤 했습니다. 미생물학자로서 전염병균이 얼마나 무서운 병을 일으키며 자칫하면 귀여운 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그였지만 자기가 연구한 예방주사약을 이렇게 최종적으로 확인한 다음에야 인민들에게 쓰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미덕은 어떤 명예나 돈을 위해서는 할 수 없고 더욱이 강권이나 명령에 의해서는 발휘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려는 높은 헌신성을 가졌을때만 발휘될 수 있는 아름다운 소행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사연은 도처에서 수없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당과 국가가 인민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 주고 있습니다. 그리기에 우리 나라에는 한명의 실업자도, 버림을 받는 고아나 늙은이도 없습니다. 이것은 한평생 인민을 위해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사랑이 낳은 고귀한 결실이며 집단주의적 도덕관계를 구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하신 수령님의 고귀한 업적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으로 혁명선배들은 존대하고 동지들 호상간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고상한 동지적 관계가 온 사회에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혁명선배들을 존대하고 온 사회에 헌신적인 동지적 사랑의 관계를 확립하는 것은 사회주의사회의 새로운 윤리도덕관계확립의 절박한 문제이고 사회주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혁명동지들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과 혁명적 의리로 우리 혁명을 개척하고 전진시켜오신 위대한 수령님에 의해서 혁명선배들은 존대하고 동지들은 끝없이 사랑하는 것은 우리 혁명의 자랑스러운 전통으로 고상한 사회적 도덕기풍으로 전환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혁명선배들을 존대하는 혁명적 의리의 미풍이 온 사회를 확고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혁명의 후대들은 혁명선배들을 끝없이 존경하고 내세우며 그들이 이룩한 공적을 계승하고 빛내어나가고 있습니다. 대성산 혁명열사릉과 신미리 애국열사릉이 훌륭히 일떠서고 나라의 방방곡곡에 혁명투사들과 영웅전사들의 위훈을 길이 전하기 위한 기념비들과 동상들이 건립되는 것은 혁명선배들을 존대하는 우리 인민들의 고상한 윤리도덕의 발현입니다. 사회주의가 무너진 나라들에서 전쟁노병들과 전상자들이 길가의 조약돌처럼 버림받고 있을 때 우리 나라의 새세대 청년들은 전쟁노병의 친자식, 친딸이 돼서 그들을 친부모처럼 돌봐주어 세상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혁명선배들을 존대할뿐아니라 동지들을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는 헌신적인 동지애가 온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청춘남녀들은 불구가 된 영예군인들의 일생의 길동무가 될 것을 결심하고 그들과 가정을 이루었으며 행복의 웃음꽃을 피워가고 있습니다. 또한, 혁명동지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서슴없이 바치는 고결한 희생정신도 높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그들 속에는 터지는 수류탄과 지뢰를 자기 몸으로 덮어 혁명동지를 구원한 영웅전사들도 있고 떨어지는 바위와 굴러내리는 자동차와 강차를 몸으로 막아 수많은 인민들과 혁명동지들을 구원하고 장렬한 최후를 마친 사람들도 있습니다. 혁명동지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우리 인민의 희생정신이 얼마나 숭고한가 하는 것은 자기 딸을 잃으면서도 혁명동지의 딸을 구원한 서해의 어느 한 어업수산작업반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소행을 놓고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강물에 빠진 아이를 구원하러 강에 뛰어들어섰을 때 자기 딸도 물어 빠져 사경의 처한 것을 알았지만 자기 딸에게로 헤엄쳐 간 것이 아니라 동지의 딸부터 구원했습니다. 그가 동지의 딸을 구원한 다음에 자기 딸 곁으로 헤엄쳐 갔는데 그때는 이미 죽은 몸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와 그에게 위로의 말을 했을 때 그는 구원된 동지의 딸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딸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소. 이애도 내 딸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미덕은 우리 나라에서 수없이 찾아볼 수 있는 일입니다.

위대한 수령님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으로 온 사회에 새로운 사회공동생활기풍이 확고히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공산주의적인 윤리도덕관계가 온 사회를 지배하자면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노동에 성실히 참가하며 노동의 창조물은 아끼고 사랑하는 것과 같은 참다운 사회공동생활기풍을 확립하여야 합니다. 한없이 거룩한 인민적 풍모를 지니시고 인민을 위하여 아낌없이 모든 것은 다 바치신 어버이 수령님의 위대한 풍모는 우리 인민 모두를 근면하고 예절바르고 사회공동생활기풍이 확고히 선 성실한 인민으로 키웠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 새세대 청년들을 비롯한 수많은 근로자들은 도시를 떠나 탄광, 광산, 농촌으로 자원진출하고 자진해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날 착취에서 극도로 천시되던 도로관리나 신발수리 같은 것은 스스로 맡아 인민의 충복으로 복무하는 공산주의적 미덕이 수많이 발양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또한 나라와 인민의 재산을 자신의 눈동자와 같이 아끼고 사랑하며 그것이 지키기 위해 자기의 생명까지도 서슴없이 바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나라의 산림자원을 산불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인민군군인들과 청소년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자연재해로부터 나라의 철도를 구원하기 위해 꽃나이 생명을 바친 소년영웅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로 터지는 강둑과 저수지 둑을 자기 몸으로 막아 수많은 인민들을 생명, 재산을 지킨 영웅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고상한 공산주의 도덕품성의 아름다운 소유자로 자라나고 온사회의 가장 고상한 윤리도덕관계가 지배하는 정의로운 사회가 건설된 것은 어버이 수령님께서 한평생을 바쳐 이룩하신 고귀한 업적의 하나입니다. 실로 위대한 수령님의 인덕에 의해서 전민이 수령을 따라배우고 모두가 수령의 풍모를 닮아가며 인간과 사회를 도덕적으로 완성해나가는 희한한 현실이 펼쳐지게 되였으며 사회정치적 생명체안에서 매 성원들이 지켜야 할 공산주의적 도덕의 본보기가 마련되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온 사회에 공산주의적 윤리도덕관계를 전면적으로 확립하심으로 해서 인류는 착취와 압박이 없고 도덕적으로 완성된 사회의 모습을 엄연한 현실로 볼 수 있게 되였으며 참다운 인간사회를 이 땅위에 건설해놓으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영원히 빛내어나갈 것입니다.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번 기념특강의 결속강의로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김일성방송대학 교무부에서 알립니다.

주체91부터 92, 2002부터 2003학년도 **김일성**방송대학 강의를 다음과 같이 조직진행합니다.

개강은 주체91(2002)년 4월 17일, 졸업식은 주체92(2003)년 2월 20일에 합니다. 그리고 기본강의는 주체91(2002)년 4월 17일부터 주체92(2003)년 2월 19일까지, 휴학기간 특강 및 보충강의는 주체92(2003)년 2월 21일부터 4월 14일까지 진행합니다.

교수과목 및 강의횟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혁명역사 120회,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역사 180회,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 혁명역사 60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노작 90회,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 노작 240회,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 노작 10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혁명사상 300회,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명언 40회, 21세기의 태양 **김정일**장군 60회,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 40회, 조국통일에 관한 조선노동당의 정책 30회, 특강 30회, 휴학기간 특강 및 보충강의는 53회, 계 1253회입니다. 주파수는 중파 657, 684, 729, 801, 855, 단파 6250, 6400 사이클입니다.

청강생 여러분들이 새 학년도 **김일성**방송대학 강의를 주의깊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남북관계개선에 제동을 거는 이회창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이회창은 한나라당의 경선후보합동토론회에서 한반도의 평화공존을 이루고 통일로까지 가자면 북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해야한다느니 ≪상호주의≫와 ≪검증≫이 필요하다느니 뭐니하고 떠들어댔습니다. 이것은 북을 ≪개혁개방≫에로 유도해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체제로 통일하자는 것이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차단하기 위한 용납못할 반민족, 반통일적 작태라 하겠습니다.

이회창이 북을 ≪개혁개방≫에로 유도해야한다는 넋두리를 늘어놓은 것은 물과 불사이의 합의를 못했다는 것만큼이나 어리석고 불순한 짓이라고 봅니다.

어떤 위협과 유혹에도 끄떡없이 사회주의강성대국을 향해 승승장구하는 이북의 우세한 현실을 국제사회가 다 알고 있고 미국의 간첩위성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가까운 휴전선너머로 북을 직접 쳐다보고 있는 이회창의 경우에는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북에서는 이회창이 바라는 어떤 변화란 언제가도 볼 수 없을 것이고 있다면 오직 이회창도 계산할 수 없는 사회주의의 힘찬 전진과 승리만이 있을 것입니다.

이회창이 입버릇처럼 떠드는 ≪상호주의≫와 ≪검증≫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반통일분열주의책동을 계속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민족문제는 결코 남과 북이 등가교환에 의해 해결할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의 이해관계를 떠나 오로지 민족공동의 이익을 첫자리에 놓고 해결해야 할 숭고한 애국위업입니다. 이것을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아야 한다는 등가교환의 장사꾼논리에 맞추려는 것은 죄악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회창이 제창하는 상호주의는 철두철미 반민족적인 논리, 대결의 논리입니다.

이회창이 떠드는 ≪검증≫문제도 그렇습니다. 이북에서는 지난 84년 이남에서 수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한지에 나앉았을 때 동포애와 인도주의차원에서 많은 쌀과 시멘트, 천, 의약품들을 보내주었지만 ≪검증≫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회창은 북에 별로 주는 것도 없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검증≫에 대해 떠들며 여당을 공격하고 있는 것은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 교류를 전면 차단해 보려는데 있는 것입니다.

까막귀 하루에 열두번 울어도 ****소리뿐이라고 이회창에게도 반북반통일대결을 고취하는 극악한 언동밖에 나올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회창이 한나라당의 경선후보합동토론회에 나타나 국민의 지지도를 얻어보려고 책동했지만 그것은 결국 자기 손으로 자기 눈을 찌르는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북간의 대화와 접촉,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어 통일의 문이 열릴 것을 바라고 있는 각계 민중은 지금 이회창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망하고 통일도 요원해진다며 이회창이 경선후보포기와 함께 정계에서 즉시 퇴진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

이회창은 대세의 흐름과 민심을 직시하고 대통령이 되어보려는 허황한 개꿈에서 깨어나 국민의 요구대로 정계에서 퇴진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제의 초점 - 구국의 소리
주체 91, 4월 13일

한반도의 전쟁불구름 몰아오는 이회창 몰아내자

지금 우리 민중과 온 겨레는 한반도에 새전쟁의 먹구름을 몰아오고 있는 미국의 대북강경전쟁책동을 우려하며 반미반전투쟁을 연일 세차게 벌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회창과 그 졸개들은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민의에 역행해서 미국 호전광들과 한 뱃속이 돼서 미국의 전쟁책동에 부채질을 하고 있어서 민중의 분격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먼저 ≪한반도의 전쟁불구름 몰아오는 이회창 몰아내자≫ 이런 제목으로 김현규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 민중들속에서는 미국의 대북강경정책과 북침전쟁연습책동에 추종하는 이회창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이 울려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지극히 정당한 일이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이회창은 미국의 대북강경책동과 북침전쟁연습책동에 적극 추종하면서 이 땅에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대양건너 미국으로 건너가 상전들을 찾아다니며 대북관계에서의 상호주의, 투명성과 검증, 제도통일론을 구걸하던 이회창은 부시의 ≪악의 축≫발언이 나오자 그를 적극 지지찬양하면서 한수 더 떠서 일본 상전까지 찾아가 ≪악의 축≫ 지지망발을 또다시 늘어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북의 대량살상무기위협설과 대북핵무기선제공격에 맞장구를 치며 이 땅을 미국의 살인무기전시장, 핵전쟁화약고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회창은 우리 국민의 반미투쟁을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미친다느니 불순세력들에 이어서 테러라느니 하면서 악의에 차서 비방중상에 나서는 것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을 시비하며 주한미군이 한반도평화에 큰 기여를 했다느니 뭐니하면서 주한미군철수를 극력반대해 나서고 있습니다.

이회창은 온 국민이 요구하는 주한미군기지반환과 주한미군철수문제를 놓고도 이 땅에 안보를 해칠 수 있다고 역설하면서 식민지변견, 미국의 졸개로써의 정체를 여지없이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이뿐이 아니죠. 이회창은 이미 다 낡아빠진 대북관계에서의 상호주의, 투명성, 철저한 검증을 염불처럼 되풀이하며 남북관계를 대결의 국면에로 몰아가려고 어리석게 책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남북민간단체들의 새해맞이 공동행사가 무산된 주되는 원인도 이회창역도에게 있습니다.

이회창과 그 졸개들은 행사를 앞두고 북한퍼주기론, 북한불변론을 떠벌이는가 하면 행사가 반미선전장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느니 뭐니하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통일인사들의 행사참가의 길을 각방으로 가로막아 나선 겁니다.

최근에만도 6.15공동선언에 명시된 합리적인 통일방안을 한사코 반대하고 제도통일론을 부르짖는가 하면 북의 대량살상무기위협, 재래식무기축감, 투명성을 떠들며 북을 악랄하게 걸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나 남북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깨뜨리고 이른바 흡수통일로 동족인 이북을 집어삼키겠다는 망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회창의 책동은 6.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이 땅에서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나라의 자주통일을 이룩하려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염원에 대한 명백한 거부이고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반 사실은 이회창이야말로 대권을 위해서라면 민족의 이익도 서슴없이 미상전에 섬겨 바치는 추악한 친미사대매국노, 부시의 졸개, 반통일역적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이런 자가 집권하면 남북화해와 단합은 이루어질 수 없고 6.15공동선언마저도 날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세는 더욱 격화되어 나아가서 한반도에 전쟁이 터져 우리 민족이 그 피해를 당하게 될겁니다. 그러니 우리 민중이 어찌 민족반역자 이회창을 그대로 놔둘 수 있겠습니까. 현실은 우리 민중들로 하여금 반이회창투쟁의 불길을 더욱 거세게 지펴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중운동조직들과 핵심들은 대중속에 미국의 전쟁머슴꾼이 되어 이 땅에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려 하고 있는 이회창의 죄행을 널리 폭로단죄해야 합니다.

각계 민중들은 지난해 반이회창투쟁을 벌이는 과정에 얻은 귀중한 경험을 살려 이회창정치활동감시단과 이회창바로보기운동, 선전단활동 등 투쟁들을 현실의 요구에 걸맞게 심화시켜 꾸준히 벌여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연초부터 시작돼 고조되어 온 반전반미반부시투쟁을 부시의 졸개인 이회창을 매장하기 위한 반이회창투쟁과 밀접히 결부해서 벌여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이 투쟁들을 부시행정부의 기관지로 불리우는 조선일보매문지집단을 척결하기 위한 조선일보반대투쟁과 한 연장선에서 꾸준히 벌여나가야 합니다.

반이회창투쟁을 벌이는데서 중요한 건 각계 민중들의 연대연합을 공고히 하는 겁니다. 운동핵심들은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이회창이야말로 사대매국노, 전쟁광신자, 통일의 원수일뿐 아니라 노농해방을 가로막는 민중의 원수라는 걸 올바로 인지시키고 그들이 반이회창투쟁에 적극 나서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면하여 노농대중이 지금 벌이고 있는 생존권투쟁이 신자유주의의 본질이자 원흉인 미국과 그의 졸개인 이회창을 반대하는 반미반이회창투쟁에로 지향시켜 나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모든 운동단체들과 손을 잡고 범국민적인 반이회창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여야 합니다.

전쟁이냐 평화냐, 분열이냐 통일이냐 하는 준엄한 이 시각 우리 민중들이 서야 할 위치는 반이회창투쟁의 맨앞자리입니다. 각계 민중은 거족적인 투쟁으로 이 땅에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려는 미제의 전쟁머슴꾼 이회창을 단호히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일신의 영달과 권력을 위해서라면 민중을 전쟁의 참화에 밀어넣는 것도 서슴지 않는 이회창과 같은 역적, 악한이 대통령자리에 앉게 되면 민족이 큰 재난을 입게 되리라는 건 불보듯 뻔하다고 하겠죠.

오늘의 연단 -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13일

미국은 침략자, 약탈자, 전쟁의 화근

우리 민중,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미국은 침략자, 약탈자, 전쟁의 화근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삼척동자에게도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죠. 오직 이회창과 같은 극소수의 사대매국, 반통일분자들만이 우방이요 뭐요하며 미국을 할애비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미국은 침략자, 약탈자, 전쟁의 화근≫이라는데 관해 유진명씨 모시고 얘기드리겠습니다.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유진명 : 네, 안녕하세요.

사회자 : 지금 각계 국민들속에서는 침략자이고 약탈자이며 전쟁의 화근인 미국을 저주규탄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는데요. 이건 침략자, 약탈자, 전쟁의 화근인 미국에 대한 응분의 표출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침략자, 약탈자, 전쟁의 화근인 미국의 실체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해가지고 이렇게 모셨는데요. 먼저 미국이 해방자, 원조자가 아니라 침략자라는데 대해서 얘기 주셨으면 합니다.

유진명 : 한국을 저들의 영원한 식민지군사기지로 장악하고 이를 발판으로 해서 이북을 병탄하고 나아가서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려는 건 미국의 변함없는 야망이고 그런 전략인 겁니다. 미국은 바로 이러한 침략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8.15광복후 해방자의 탈을 쓰고 이 땅을 군사적으로 강점하고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유린하면서 실제적 통치자로 행세해왔어요. 그건 1945년 9월 8일 인천상륙시에 미태평양육군총사령관 맥아더가 공포한 포고문에서 명백히 나타났죠.

맥아더는 ≪포고문≫ 제1호에서 ≪본관은 본관에게 부여된 태평양 미육군의 최고권한을 가지고 이로부터 북위38도 이남의 지역과 그 주민에 대한 모든 행정권을 당분간 본관의 권한하에서 시행함. 주민은 본관과 본관의 권한하에서 발표한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할 것. 점령군에 대하여 반항행위를 하거나 또 질서보안을 문란케 하는 자는 용서없이 엄벌에 처함.≫라고 선포했어요.

이렇게 군정을 선포한 미국은 곧 38선 이남지역에서 민중의 창의에 의해 설립된 인민위원회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 그 대신 친미친일세력들을 규합해서 식민지정권을 창출하고 식민지통치를 실시했고 각종 파쇼적인 악법들을 조작함으로써 식민지통치체계를 확립했죠. 이것은 미국이 해방자가 아니라 철두철미 침략자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자 : 그렇습니다. 미국이 침략자이고 미군이 침략군이라는 건 그들이 바로 6.25전쟁도발의 진범인이라는데서도 여실히 드러났다고 보는데요.

유진명 : 그렇죠. 6.25전쟁은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에 의해 강행된 침략전쟁이었어요. 미국침략자들이 도발한 6.25전쟁은 이북을 요람기에 없애버리고 저들의 식민지를 한반도전역으로 확대해 이 땅을 저들의 대륙침략의 전략기지, 전초기지로 전변시키려고 획책한 침략전쟁이었죠. 미국은 이 전쟁에 저들의 최신군사장비로 무장한 육군의 3분의 1과 공군의 5분의 1, 태평양함대 대부분, 그리고 15개 추종국가 군대들과 국군을 비롯해 무려 570여만의 대병력을 동원했고 막대한 군사비와 군수물자를 탕진하면서 세계전쟁사에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야수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썼어요. 이 전쟁에서 미국은 우리 겨레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재난을 가져다줌으로써 침략군대의 야수적 본성과 생리를 여지없이 드러내 놓았죠.

사회자 : 미국은 휴전후에도 새로운 침략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이 땅을 계속 식민지군사기지로 거머쥐고 파쇼적인 식민지폭압통치와 북침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이지 않았습니까.

유진명 :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1954년 11월 군사경제원조에 관한 협정과 한미회담의사록을 조작하고 이를 통해 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장악했고 이 땅을 미국의 극동침략전략의 전투기지로 꾸리기 위해 1957년 7월에는 주한미군의 핵무장화를 공개하고 도쿄에 있던 유엔군사령부를 이 땅에 옮겼어요. 또한 유엔군철수문제가 일정에 오르게 되자 이승만을 사주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게 하고 주한미군의 장기강점을 합리화했죠. 뿐만 아니라 미국은 식민지통치와 파쇼독재, 영구분열을 반대하는 우리 민중의 4.19민중봉기, 부산미문화원방화투쟁, 5.18광주민중봉기 등을 가혹하게 탄압말살하도록 역대 한국위정당국자들을 배후에서 조종했습니다.

사회자 : 미국은 침략자일뿐 아니라 가장 음흉하고 파렴치한 약탈자가 아닙니까. 그건 미국이 이 땅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이르는 곳마다에서 약탈행위를 일삼은 것만봐도 잘알 수 있잖아요.

유진명 : 미국은 우리 민족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일제재산을 우리게게 돌려줄 대신 적산이라는 이름밑에 약탈해 저들의 것으로 만들었죠. 미국이 탈취한 재산에는 주식회사 총재산의 91%와 공익부문 총투자액의 94%에 해당하는 공기업체들을 비롯해 일본인이 점유하고 있던 철도, 선박, 체신시설, 금융기관 등 주요경제명맥과 토지가 속해 있어요. 이렇게 경제의 명맥을 일시에 탈취한 미국은 한국경제의 실제적인 지배자로 등장했죠. 또한 미국은 이른바 원조라는 미명하에 퇴화된 잉여상품과 낡아빠진 무기를 판매처분함으로써 막대한 이윤을 짜냈고 민족경제를 파괴하고 이 땅을 잉여상품판매시장으로 전변시켰어요.

뿐만 아니라 경제명맥을 장악하고 차관과 직접투자를 통해 한국경제를 저들에게 철저히 의존해 연명하는 식민지하청경제로 만들어 놓았죠. 특히 80년대 들어와서는 노골적인 시장개방압력을 통해 한국경제에 대한 지배와 약탈을 더욱 강화했죠. 미국이 1987년 7월 악명높은 미통상법301조를 발동해 강요한 시장개방요구는 그 수법과 약탈성에 있어서 유례없이 파렴치한 것이고 우리 국민들로부터 해마다 60여억달러를 빼앗아가는 약탈적인 것이였습니다.

사회자 : 미국의 약탈적 행위는 주한미군유지비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세계적으로 침략적인 외국군사기지철수는 시대적 요구로, 막을 수 없는 추세로 되고 있죠. 그러나 이 시대적 흐름과는 달리 이 땅에서만은 미국의 오만한 침략적, 약탈적 책동으로 해서 미군기지들이 철수되기는 고사하고 더욱 확대강화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의 피땀을 짜내는 악의 근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유진명 : 미국은 주한미군유지비를 계속 늘리면서 막대한 돈을 받아먹고 있어요. 1990년대중엽부터 3억달러를 넘어선 미군유지비가 1997년에는 3억6300만달러, 지난해에는 4억4000만달러에 달했고 올해는 5억8000만달러로 올리려 하고 있는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죠.

미국은 이 땅에 부동산을 사용료도 내지 않고 마음대로 이용하는 방법으로도 해마다 막대한 이득을 얻고 있습니다. 미군기지가 차지하고 있는 근1억평의 땅을 돈으로 계산하면 무려 12억9000만달러에 달해요. 또 미군이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훈련장비용은 연간 1100여만달러이고 세금을 내지않고 사용하는 군사시설비는 연간 1억3800만달러에 달합니다.

미국이 1995년부터 1997년사이에 주한미군유지를 위한 간접비로 얻어낸 이득만도 무려 67억6200만달러에 달하죠. 결국 미국은 해마다 수십억달러를 주한미군유지비의 명목으로 빼앗아가고 있어요. 미국은 이렇게 걷어들인 유지비를 주한미군무력을 증강하고 군사장비를 현대화하며 군사기지와 시설을 보강하는 등 한반도에서의 대결과 긴장격화, 새전쟁도발책동에 돌리고 있죠.

미국이 1989년부터 2000년까지 주한미군연합방위증강사업이라는 구실로 공중공격훈련장꾸리기 등 100여개 군사대상강화에 10억2500만달러를 탕진한 것이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사회자 : 미국은 침략자, 약탈자일뿐 아니라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증대시키며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전쟁의 화근이 아닙니까.

유진명 : 옳습니다. 미국은 지난 세기 6.25전쟁을 일으켜 우리 민족에게 한차례의 전쟁참화를 덮씌우고도 부족해 이 땅에 근 4만여명의 미군과 1000여개의 핵무기를 비롯한 군사장비들과 대량살육무기를 대대적으로 끌어들여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전쟁화약고로, 핵전초기지로 전변시켰어요. 그리고 이북을 반대하는 군사도발과 대규모 북침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이면서 이북을 침략하기 위한 기회만 노려왔죠. 1968년 1월 프에블로호사건과 1969년 4월 대형간첩비행기 ≪EC121≫사건, 1976년 8월 판문점사건, 1994년 12월 헬기사건을 비롯한 수많은 군사도발과 팀스피리트한미합동전쟁연습, 을지포커스렌즈, 독수리를 비롯한 각종 북침전쟁연습만 봐도 미국이 이북을 침략하기 위해 얼마나 광분해왔는가를 잘 알 수 있게 하죠.

북침전쟁을 위한 미국의 군사적 도발건수는 휴전후 1999년에 이르기까지 총15만여건에 달하고 북침전쟁연습은 큰 규모의 것만해도 무려 1만여건에 이르고 여기에 동원된 병력은 연 2000만명에 달합니다. 특히 미국은 제2북침전쟁계획인 작전계획 ≪5027-98≫을 짜놓고 각종 합동전쟁연습들의 규모와 강도, 횟수를 대폭 늘리고 있죠. 미국은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60만명의 미 지상군과 5내지 7개의 항공모함편단, 200척의 함선, 1200대의 전투기를 들이밀 것이라고 공식발표했어요. 이건 미국이 한반도에서 제2의 북침전쟁을 기어이 도발하려고 얼마나 혈안이 되어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회자 : 미국의 북침전쟁책동은 지난해 1월에 집권한 부시정권에 의해 더욱 악랄하게 감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강경매파들로 꾸려진 부시행정부는 집권 첫날부터 이북을 제1주적으로 선포하고 있지도 않는 이북의 핵위협, 미사일위협, 대량살상무기위협을 떠들면서 이북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일삼는 한편 북침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유진명 :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는군요.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한 부시는 이북을 ≪악의 축≫이라는 망언을 연발하면서 주한미군의 전투력을 증강하고 막대한 전쟁장비를 강매하고 있어요. 더욱이 엄중한 것은 부시집단이 이북에 대해 전면적인 핵무기사용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최근 지난 시기에는 볼 수 없었던 연합전시증원연습과 독수리합동전쟁연습을 통합해 최대규모의 북침전쟁연습을 벌였어요. 이건 부시행정부가 저들의 침략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 민족을 멸살하기 위한 핵전쟁도 서슴없이 강행하려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자 : 제반 사실은 미국이야말로 우리 민족과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침략자, 약탈자이며 전쟁의 화근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침략자, 약탈자, 전쟁의 화근인 미군이 아직까지 이 땅에 둥지를 틀고 주인행세를 하면서 우리 민중에게 온갖 고통과 재난, 불행을 덮씌우고 있으니 어디 될일입니까. 각계 국민들은 한반도에서 새로운 전쟁을 일으키려는 미국의 책동에 경각심을 높이며 침략과 약탈, 전쟁의 화근인 미국을 이 땅에서 몰아내기 위한 성전에 적극 나서야 할겁니다.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유진명 : 감사합니다.

사회자 : 우리 민중, 우리 민족중에 미국, 미군에 의해 상처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하겠죠. 찢여 죽여도 가슴속 원한을 씻을 수 없는데 미군유지비까지 꼬박꼬박 섬겨바치고 있으니 참으로 기막힌 일이 아닐 수 없고 민족의 수치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거족적인 반미투쟁으로 미군을 이 땅에서 쫓아내고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끝장내야 하겠죠.

오늘의 연단 - 구국의 소리
주체 91, 4월 13일

색깔 있는 정치하자

색깔정치, 이념정치

요즘 민주노동당은 한국 정치를 가르는 시금석, 리트머스지, 경계선이 되어 있다. ≪안정 보수≫ 이회창과 ≪개혁 보수≫ 이인제와 ≪급진 좌경≫ 노무현이, 민주노동당과 자신들을 비교하며 한판 씨름 중이기 때문이다. 힘 없는 민주노동당으로선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너무 찜찜하다. 보수 정객들이 민주노동당을 들먹일 때마다 자신들의 무식함을 드러내고 있으니, 이런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기고 있는 현실이 비참하고, 그들의 주장이란 것이 민주노동당으로부터 멀리 있음을 한사코 강변하는 한통속이니, 너무도 척박한 한국 정치가 서글프다.

이념과 정책 논쟁이 지역이니 인물이니 하는 전근대적인 기준보다 월등한 것은 분명하다. 문제는 근래의 논쟁이 이념과 정책이라는 이름값에 걸맞는가 하는 것인데, 보수 정객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신문 지면을 달구는 이야기들은 중학교 사회교과서의 이념 구분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회창과 이인제는 노무현더러 ≪너, 사회주의지≫라고 묻고, 노무현은 호들갑을 떨며 ≪아닌데요≫라고 답한다. ≪너, 예전에 이렇게 말했잖아≫라고 되물으면, 노무현은 ≪그 때는 철이 없었어요≫라고 변명한다.

세 후보의 노선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사이를 오가는 어떤 정책을 두고 갈라 서는가? 아니다. 이인제, 이회창이 반대하고, 노무현이 번복한 ≪재벌해체≫는 극우군인 맥아더가 이미 실천한 것이고, ≪노동자 소유 경영 참가≫는 대한민국 헌법과 현행법에 의해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세 사람 사이에 오가는 논쟁이란 것이 노선의 계급성, 그리고 개별 정책의 총합으로서의 이념을 두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욕지거리에 불과할 뿐인 구래의 ≪색깔론≫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상식적으로 이념 · 정책 논쟁은 보수정당과 진보정당, 적어도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정도의 정치지형이 형성돼 있어야 가능하다.

그런데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모두 신자유주의와 재벌과 미국을 섬기고 있고, 국회에서 세입 1%와 정부예산 0.1%를 놓고 드잡이 하는 수준이니, 그들의 차이라는 것은 현미경 아래에서나 분별 가능하다. 그나마 정권이 바뀌면 헌신짝처럼 버리는 차이에 불과하다.

민주노동당이 나서야 하겠지만, 정작 그 상대가 되야 하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에는 지조 있는 이념이나 진짜 정책이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한국정책학회는 그렇게 평가한다.

≪(보수정당의) 대부분의 공약 내용들이 선심성 공약들로서 지엽적인 정책 목표들만 단순히 나열시켜 놓았을 뿐, 그러한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단이나 재원들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다. …… 9개 정당 가운데, 재정의 규모, 실현 시기 및 재원 조달 방안을 가장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정당은 민주노동당이다.(정견정책 자료집 2000)≫

사실, 노무현의 노선은 유럽 기민당보다도 보수적이다. 그런 노선을 ≪좌경≫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나 표 떨어질까봐 말 바꾸는 사람에게는 이념을 논할 자격이 없다. 중학교 교과서 정도는 이해하고, 제 노선을 용기 있게 고수하는 보수가 나타나기 전까지 한국 사회에서 이념 논쟁은 불가능하다.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82호(4.8~4.14)

남북 금강산상봉 일부일정 합의

오는 28일 4차 이산가족 방북단 100명이 먼저 금 강산을 찾아 2박3일간 재북 가족 및 친척과 만나고, 이어 다음달 1일에는 북측 이산가족의 재남 가족 및 친척들이 방북하게 된다.

대한적십자사는 14일 남북 양측이 전날 오전 판문점의 연락관 접촉과 오후 전화통화 등을 통해 금강산 상봉 방안과 관련된 일부 사항을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음달 1일 금강산에서 북측 이산가족과 상봉할 재남 가족 및 친척들은 북측 가족 1명 기준으로 한번에 재남 가족 5명까지 만났던 전례에 따라 500명의 방북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 인원 문제가 아직 남북간에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또 상봉 장소나 횟수, 숙소 등에 대해 아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에 따라 ≪오는 18일께 의견 조율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한적은 전했다.

또 상봉 횟수나 장소, 숙소 등 세부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남측 답사팀이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금강산 현지를 둘러보기로 하고 북측은 안내 등 편의를 제공하기 로 했다.

남북 적십자 양측은 또 건강이나 사망 등의 이유로 교체대상자를 각각 통보했다.

북측은 공훈예술가 황영준(82) 화백이 사망함에 따라 2차 방문단 후보명단에 포 함됐던 리은주(74)씨를 4차 상봉 대상자로 대신 선정했고, 남측은 건강이 악화된 신 용익(77씨를 박재례(64.여)씨로, 박분순(78.여)씨를 염경빈(남.66)씨로 각각 교체했다.

심규석기자
연합뉴스 2002/04/14

한양대에 불고있는 북풍

5월 14일까지 ≪이북바로알기 연속강좌≫진행

한양대 캠퍼스에 북풍이 불고 있다. 바로 ≪이북 알기를 위한 연속강좌≫가 그것.

지난 4월2일 부터 오는 5월14일까지 매주 화요일 서울캠퍼스 사회과학대 401호에서 진행되는 ≪연속강좌≫는 통일정책연구소와 기독교 이북선교회가 공동주관하고 한양대 홍용표(사회대 정외과)교수가 담당하고 있다.

관계자에 의하면 ≪딱딱한 이북 연구의 학문적 접근이 아닌 경험자 및 이북전문가들의 오랜 연구를 통한 실질적인 정보들을 전달하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흔하지 않은 강의이니 많은 학생들이 참석해 이북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이해를 넓히는데 적극 활용하라≫고 전했다.

첫 특강은 양영식 전 통일부 차관이 ≪남북협상의 경험과 교훈≫이란 주제로 테이프를 끊었다.

양차관은 ≪분단보다는 통일이 훨씬 우리민족에게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며 통일부 시절, 이북 관계자들과 접촉했던 경험을 중심으로 통일의 필요성과 남북협상교류의 노하우를 전달했다. 또 양차관은 남북 간의 관계를 연인관계에 비유하며 ≪연인관계가 지속되기 위해 계속 만나야 하는 것처럼 남북 역시 끝없는 접촉을 해야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지난 9일 두 번째로 진행된 홍용표 교수의 ≪남북한의 통일정책 :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은가?≫란 강의에서 홍교수는 ≪평화와 상호체제에 대한 인정을 토대로 통일정책을 구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연속강좌≫ 강사진은 통일연구원의 연구원인 허문영박사(이북외교), 이우영박사(이북 사회 · 문화), 김병로박사(이북사회), 양영식 전 통일부 차관과 탈북주민 김용씨 등이다.

4월 16일 이북의 식생활(김용)－오후 5시, 사회과학대 401호
4월 30일 이북사회의 구조와 가치체계(김병로, 통일연구원)－〃
5월 7일 이북외교의 특징과 변화전망(허문영, 통일연구원)－〃
5월 14일 이북영화 길라잡이(이북영화 ≪청춘이여≫상영)－오후4시, 사회과학대 멀티미디어실

박정미기자
유뉴스 2002/04/13

한반도문제학술회의 5월 미국서 개최

한반도 문제에 대해 보수, 진보로 상반된 견해를 가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학술회의가 오는 5월 미국 뉴저지주에서 개최된다.

14일 한민족포럼재단(이사장 안충승)에 따르면 ≪더불어 살 한민족≫을 주제로하는 국제 학술회의가 한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등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5월14~16일 뉴저지주 애주베리파크 버클리 카테렛오션프론트 호텔에서 열릴 예정이다.

미주 한인이민 10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현재 해외 한민족이 당면한 최대 현안을 △한국의 재외동포정책 △한반도 문제 △미주 이민 100년사의 의의 △해외 한민족의 비전 등 4개 주제로 나뉘어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또 권병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의 개막연설과 각 주제별로 이찬교 한국방송통신대학 총장, 도널드 그레그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 신호범 워싱턴주 상원의원, 하버드대 한국학연구소장 카터 에커트 교수 등의 기조연설이 있으며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한국학센터 미 · 북 관계담당 남궁건 박사와 조원일 뉴욕총영사의 초청 연설도 예정돼 있다.

주제별 발표자로는 이호경 경원대 교수, 김 게르만 카자흐스탄 국립대 한국학 교수, 황유복 베이징(北京)중앙민족대학 한국문화연구소장, 김재택 뉴욕평통 통일위원장, 김명철 조미평화센터소장, 민병갑 퀸즈칼리지 교수, 강경식 브라운대 교수, 성낙호 터프츠대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가한다.

한편 한민족포럼재단은 지난 99년 해외 한민족사회의 정체성 확립과 공동체 형성을 위해 미국 뉴욕에서 출범한 단체로 2000년 부터 해마다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해 왔다.

왕길환기자
연합뉴스 2002/04/14